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탐방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수월봉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전공

강 시 영

2018년 8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탐방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수월봉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문수

강시영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강시영의 관광학 관광경영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崔 煥 吉



위 원

洪 聖 和



위 원

趙 文 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년 8월



A Study of Visitor's Characteristics to
UNESCO Global Geopark Geotrail:
Focused on Suwolbong in Jeju Island

Si-Young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Moon-Soo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Science

2018.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Byoung K. Choo
Hong, Sung-Hwa
CHO, Moon Soo

August 2018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이론적 고찰	5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5
1) 세계지질공원 개념	5
2) 세계지질공원의 의미와 현황	8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현황	9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	16
1) 지질공원 탐방로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	16
2) 탐방 및 안내시설	18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	19
1) 지질공원의 인지도	19
2) 수월봉 트레일의 탐방객 인식	21
4. 선행연구의 고찰	23
III. 조사 설계	28
1. 연구가설	28
1) 가설의 설정	2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9
2. 조사계획	30
1) 조사목적	30
2) 조사지역 및 대상	31
3) 조사 시기 및 방법	31

4) 설문지 구성 및 자료의 측정	32
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
IV. 실증분석	34
1. 표본의 특성	34
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34
2)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38
2. 신뢰성 검증	42
1)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신뢰성 검증	43
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신뢰성 검증	46
3.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증	51
1)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타당성 검증	52
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타당성 검증	54
4. 연구가설의 검증	55
1) 가설 1의 검증	55
2) 가설 2의 검증	67
3) 가설 3의 검증	82
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90
1) 분석결과의 요약	90
2) 분석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94
V. 결론	96
1. 연구결과의 요약	96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98
참고문헌	100
설문지	104
ABSTRACT	108

표 목차

<표 2-1> 유네스코 환경보호제도의 특성 및 관리 기준	6
<표 2-2> 세계지질공원 인증 평가요소와 가중치	7
<표 2-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11
<표 2-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내 탐방시설현황	19
<표 3-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의 관리현황	31
<표 3-2> 설문 의 구성	32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5
<표 4-2>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표 4-3> 표본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39
<표 4-4>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41
<표 4-5>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44
<표 4-6>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	45
<표 4-7>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47
<표 4-8>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48
<표 4-9> 지질공원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	49
<표 4-10>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홍보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	49
<표 4-11>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문 의향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50
<표 4-12>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재방문 의향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	51
<표 4-13> 탐방동기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증	53
<표 4-14>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증	54
<표 4-15>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탐방형태 교차분석표	57
<표 4-16> 성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차이분석	61
<표 4-17>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61
<표 4-18>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62
<표 4-1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분산분석	63

<표 4-20> 성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64
<표 4-21>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65
<표 4-22>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65
<표 4-23>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산분석	66
<표 4-24>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에 따른 탐방동기 차이분석	68
<표 4-25>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68
<표 4-26> 수월봉 방문 동행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69
<표 4-27>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70
<표 4-28> 수월봉 대표명소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	71
<표 4-29>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른 탐방동기 차이분석	72
<표 4-30>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분산분석	73
<표 4-31> 탐방동기가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74
<표 4-3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방법에 따른 운영 차이분석	76
<표 4-33>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76
<표 4-34> 수월봉 방문 동행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	77
<표 4-35>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	78
<표 4-36> 수월봉 대표명소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79
<표 4-37>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79
<표 4-38> 탐방형태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운영에 대한 분산분석	81
<표 4-39> 프로그램 운영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82
<표 4-40>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한 차이분석 ..	83
<표 4-41> 거주기간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84
<표 4-42> 제주도내외 탐방객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분산분석	85
<표 4-43>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86
<표 4-44>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차이분석	87
<표 4-45> 거주기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88

<표 4-46> 제주도내외 탐방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산분석	89
<표 4-47>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90
<표 4-48> 분석결과의 요약	93

그림 목차

<그림 2-1> 세계지질공원의 연도별 증가 추세	7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지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지질공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제주도 지질공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는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여 지질공원을 알리고 지역주민에게도 지역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지질공원 국제트레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와 관광 활성화 정도, 지역주민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월봉에서 트레일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¹⁾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3개의 마을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들이 추가되면서 탐방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변모되고 있다. 이곳의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는 수성화산 및 분석구로 이루어진 해안절벽의 지질학적인 바탕위에 다양한 역사, 문화, 생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월봉 탐방객은 2012년까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상태였으나 지질공원해설사가 배치되고 집계기 시작된 이후 2013년 하반기에만 약 85,890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에는 303,722명이 탐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²⁾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매년 30만 명 이상이 탐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탐방객의 증가는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을 처음 추진한 2011년까지만 해도 주민 대부분은 트

1)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트레일 활성화 사례 연구, 『지질학회지』, 52(5호), pp.527-538.

2) 전용문·기진석·고윤정·고정균(2015).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탐방로 활성화 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pp.61-62.

레일 행사가 마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트레일 행사가 거듭되고 탐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³⁾ 특히 지질공원 트레일 탐방과 지질공원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마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세계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역주민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마을에 대한 주민 자긍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역의 유산을 보호하고 지켜가려는 인식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트레일 행사에 참여하여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탐방객들에게 마을의 가치를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해설활동과 아름다운 경관이 널리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급증하는 관광명소로 변모되었고 마을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탐방객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민박집과 펜션, 카페들이 생겨나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들이 국가지질공원 또는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다양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지역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뿐만 아니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활성화하고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의 활성화된 대표 사례로 알려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을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분석하고, 지질공원 트레일 운영의 문제점 및 과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전용문 · 고정균 · 기진석 · 이수재(2016). 전계논문, pp.527-538.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유형과 특성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측정변수를 포함할 수 있는 측정문항과 척도를 파악하여 조작화하였다. 셋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운영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넷째 인구통계 특성과 탐방형태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한 차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탐방형태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차이분석을 통해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는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서적, 연구논문, 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운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 일대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한글 SPSS 18.0 for Windows, AMOS 18.0 통계 패키지(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에는 기술통계적 분석, 차이검정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에는 각 측정변수들의 집중 타당성과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성 및 개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그리고 내용적

범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된 제주시 환경면 고산리 수월봉 일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수월봉 일대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행사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를 통한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 계획에 대한 구성 및 흐름도를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제 II 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먼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개념과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의 운영상황과 탐방객 인식에 관한 연구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탐방하게 된 동기 및 운영에 대한 개념과 주요 변수 측정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위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 III 장은 조사의 설계로서 관련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연구목적에 맞는 변수측정들을 활용하여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탐방형태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해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에 사용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각 구성개념의 변수로 사용될 측정문항과 척도를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 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대상, 조사 시기 및 방법, 설문 구성 및 자료의 측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 IV 장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가설에 사용된 개별변수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인 결과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을 고찰하여 종합적인 논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제 V 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의 진행과정과 전개과정에 대한 흐름 및 연구 배경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 세계지질공원 개념

지질공원(Geopark)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지질관광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⁴⁾ 이후 유럽 내의 5개 지역에서 시작된 지질공원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지역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 2000년 유럽지질공원망(European Geoparks Network)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유럽지질공원망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4년 2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지질공원망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지질공원망(Global Geoparks Network)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불어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2015년 11월에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에 이어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였다.⁵⁾

유네스코 환경보호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는 달리 행위제한이 거의 없으며, 보전과 개발의 병행이 가능한 자원의 이용행태라고 할 수 있다.⁶⁾ 즉, 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의 중요한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적인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질학적 특성 이외에 생태, 고고,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⁷⁾⁸⁾

4) Jones, C.(2008). History of geoparks. In: Burek, C.V. and Prosser, C.D.(eds), Special Publications of Geological Society, 300, 273-277.

5) 주성욱·우경식(2016). 국내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방향, 『지질학회지』, 52(5), pp. 587-608.

6) 이수재·사공희·최준규·문유리·이명진·김은영·최돈원·이광춘·조홍섭(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9-16.

7) UNESCO(2014).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GGN), January 2014, p.13.

8) UNESCO(2016).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global-geoparks/unesco-global-geoparks/>(August, 2016)

<표 2-1> 유네스코 환경보호제도의 특성 및 관리 기준

구분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보호등급여부	핵심, 완충, 전이설정	핵심, 완충, 전이설정	핵심지역만 설정
보호수준	강한 행위제한	비교적 강한 행위제한	행위제한 거의 없음
지정대상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곳	국가 및 지역적 중요성을 지니는 곳	국가 및 지역적 중요성을 지니는 곳
주관부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
상호간의 관계	핵심지역만 포함	세계유산과 지질공원 중복지정 가능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포함 가능
관리	보전상태가 열악한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목록 삭제 가능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생물권보전지역 삭제 가능 조항 있음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지침'에 따라야 하며 현장평가의 지적사항이 2년 안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삭제
정기보고	6년	10년	4년 (현장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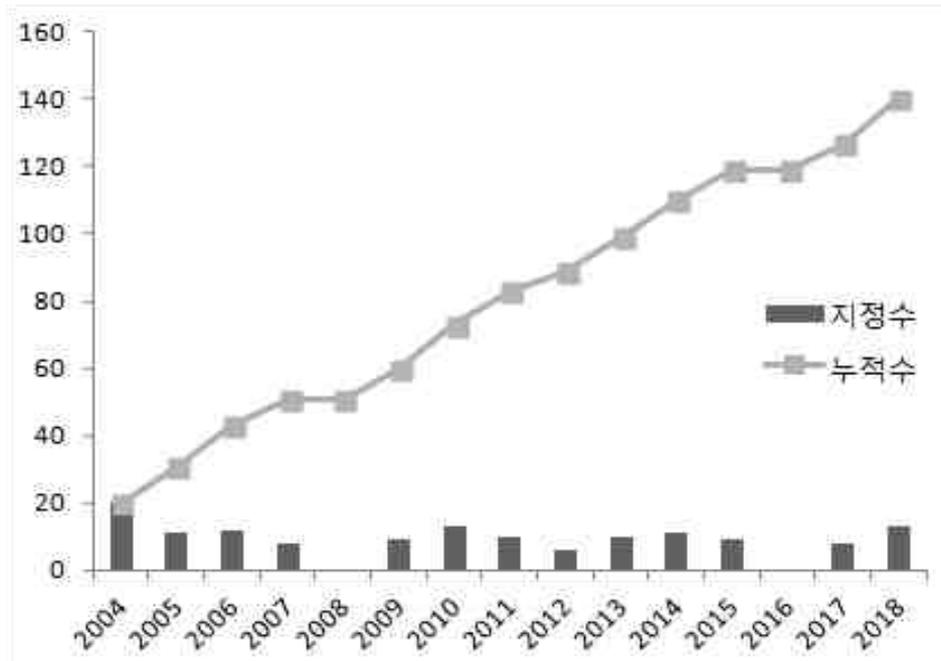
지질공원은 보전, 교육, 관광 등 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목표가 달성된다. 세계지질공원이 설립되기 전 유럽에서는 몇 개의 지질관광이 운영되어 왔으며, 지형·지질자원을 이용한 지질 유산의 보전, 교육, 지역 주민의 소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질관광의 발전은 유럽의 지질공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질공원 제도는 지질관광의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38개 나라에서 140개의 지질공원이 있으며, 중국이 37개로 가장 많은 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⁹⁾.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7년에 청송, 2018년에 무등산지역 지질공원이 인증되어 3곳을 보유하고 있다¹⁰⁾.

세계지질공원은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기대를 모은다. 세계지질공원이 21세기 자연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입증하듯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lobal Geopark Network)에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그림 2-1>과 같이 인증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9) <http://www.globalgeopark.org/homepageaux/tupai/6513.htm>

10) <http://www.globalgeopark.org/aboutGGN/list/index.htm>



<그림 2-1> 세계지질공원의 연도별 증가 추세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을 보면 지형 및 지질자원, 자연 및 문화자원 등 자원의 특성과 가치에 관한 요소 외에도 해설 및 환경교육, 지질관광,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질공원 인증 후 4년마다 <표 2-2>와 같이 인증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있다.¹¹⁾

<표 2-2> 세계지질공원 인증 평가요소와 가중치

계	지질 및 경관			관리체계	해설 및 환경교육	지질관광	지속가능 지역경제 발전
	지역 (territory)	지질보전	자연 및 문화유산				
100%	5	20	10	25	15	15	10

자료: Global geopark network, Form A&B and Revalidation template for UGGp reports

지질공원 제도의 목적은 자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질관광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지역의 지

11) <http://www.globalgeopark.org/aboutGGN/Documents/9995.htm>

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즉, 지질관광은 지질공원 인증 및 유지의 기본요소가 되는 것이다.

2) 세계지질공원의 의미와 현황

세계지질공원(GGN: Global Geoparks Network)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질공원은 1972년 세계유산에 다루던 중 지질유산(geoheritage)에서 그 개념이 발달되었다. 1989년 국제지질학연합(IUGS: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이 지질명소(geosite)를 도입하여 지질유산목록을 작성한 이래,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지질유산의 보호를 천명하였지만 2000년에 와서야 4개의 지질공원이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¹²⁾ 이후 2004년 유네스코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남아프리카 지질공원 네트워크 등 대륙별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세계유산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만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 등의 강력한 행위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질공원은 행위제한이 거의 없고 지질자원을 비롯한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모두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지질공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¹³⁾

지질공원은 조사연구, 교육, 트레일 운영 등 다양한 관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지정 후에도 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앞서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마다 현장실사를 통해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2년 후에 다시 현장실사를 하며, 이때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계지질공원에서 제외된다.

유네스코 보호대상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 자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12) 이수재·사공희·최준규·문유리·이명진·김은영·최돈원·이광춘·조홍섭(2009). 전계보고서, pp.20-22.

13) 전용문(2016). 지질공원의 목적과 의미, 『지질학회지』 52(5)권, pp.525-526.

데, 세계유산은 6년,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정기보고 또는 재평가를 통하여 그 자격 여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체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것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다른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질공원에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접근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즉, 지질공원은 세계유산이 너무나 엄격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과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발생한다는 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이 요구하는 특별한 보편적 가치는 부족하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 역사, 고고분야의 가치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제적으로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이외의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현황

(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증과정과 의의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가 2009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2010년 국내 최초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질공원은 유럽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등재 유산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있다. 또한 2009년 11월에 제주도 전체를 지질공원으로 인증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하였다. 주요 명소로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 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암층을 선정하였다.¹⁵⁾

그리고 2010년 7월 27일부터 3일 동안의 현장 실사 후 2010년 10월 4일 그리

14) 이수재·사공희·최준규·문유리·이명진·김은영·최돈원·이광춘·조홍섭(2009). 전개보고서, pp.5-18.

15) <http://geopark.jeju.go.kr/index.php?mid=KR0102>

스에서 개최된 제9차 유럽 지질공원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제주도는 유네스코의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 되었다.

제주도 지질공원 운영과 관리의 기본 원칙은 ‘지속가능한 지질관광(geotourism)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주로 경관을 보는 관광형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지질 및 다양한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관광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질명소에 탐방여건을 정비하며 탐방객의 수준별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해설사로 활동하게 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질명소를 지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도는 기존 경관위주 관광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변모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질공원은 제주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⁶⁾¹⁷⁾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지질관광과 교육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 개발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제주도는 2010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2014년에는 유네스코 재인증을 통과하였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2014년 8월에 재인증 현장 실사 때 그린카드를 받았고, 9월에 캐나다 스톤해머(Stone Hammer)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지질공원 국제 유네스코 총회에서 재인증 됨에 따라 2018년까지 세계 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16) 김용춘·고길림(2013).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pp.5-84

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17). 『3차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계획(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pp.6-78.

18) <http://geopark.jeu.go.kr/index.php?mid=KR0102>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유산을 지닌 제주도는 섬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질명소는 섬 중앙에 위치한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 수성화산체의 세계적인 연구지인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도 형성초기 수성화산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해안, 주상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제주도 형성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자 100만 년 전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서귀포층, 퇴적층의 침식과 계곡·폭포의 형성과정을 전해주는 천지연폭포, 응회구의 대표적인 지형인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가운데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만장굴, 독특한 제주도의 화산지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선홍곶자왈,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우도와 비양도가 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교래 삼다수 마을이 대표명소로 추가되었다.¹⁹⁾

현재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는 <표 2-3>과 같이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층,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수월봉,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선홍곶자왈, 우도, 비양도, 교래 삼다수마을 등 13개소가 있다.

<표 2-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대표명소	면적(km ²)	보호관리체계
한라산	153.332	천연기념물 제182호, 국립공원
만장굴	1.300	천연기념물 제98호
천지연 폭포	0.134	천연기념물 제27, 379호
중문 주상절리	0.384	천연기념물 제443호
서귀포층	0.074	천연기념물 제195호
성산일출봉	5.019	천연기념물 제420호
산방산	1.504	천연기념물 제376호
용머리	0.051	천연기념물 제526호
수월봉	0.043	천연기념물 제513호
선홍 곶자왈	0.641	자연보호구역, 람사르습지
우도	6.180	일부 천연기념물 제438호(홍조단괴 해변)
비양도	0.546	일부 천연기념물 제439호(호니토, 비양나무)
교래 삼다수 마을	23.570	일부 천연기념물 263호(산굼부리)

1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17). 전계보고서, pp.9-14.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은 완만한 경사를 지닌 방패형 화산으로서 높이는 1,950m이다. 한라산은 정상부의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약 40여개의 오름 등 다양한 화산지형을 갖고 있다. 특히 백록담의 서쪽 절반은 조면암, 동쪽 절반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분화구로 조면암질 용암돔이 형성된 이후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서 분화구가 만들어졌다. 특히 한라산 조면암은 아주 끈적끈적해서 아래로 쉽게 흘러내리지 못해 돔(dome) 형태의 봉우리를 만들면서 한라산이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되었다.²⁰⁾

성산일출봉은 약 5,000여 년 전 얇은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오름)로, 제주도 동쪽 해안에 우뚝 솟아 마치 커다란 성처럼 보인다. 성산일출봉은 분출 도중 화구의 위치가 이동하여 원래 두 개의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동쪽의 분화구가 파도에 깎여나가고 지금은 서쪽 분화구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파도에 깎여나간 화산물질은 제주도 동쪽 연안에 쌓여 원래 섬이었던 성산일출봉이 육지와 연결되었다.

만장굴은 1962년 우리나라 천연동굴 가운데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다. 만장굴은 총 길이가 약 7.4km이며, 주 통로는 폭 18m, 높이 23m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용암동굴이다. 전 세계에는 많은 용암동굴이 분포하지만 만장굴과 같이 내부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용암동굴은 드물어 학술적·보전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만장굴은 동굴 중간 부분의 천장이 함몰되어 3개의 입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제2입구이며, 1.0km만 탐방이 가능하다. 만장굴 내에는 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유석, 용암유선,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의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이 발달해 있으며, 개방구간 끝에 있는 약 7.6m 높이의 용암석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패류화석층은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렵 얇은 바다에서 폭발한 수성화산활동으로 생긴 화산체가 오랜 시간 파도에 깎이고 바다에서 조개와 같은 해양퇴적물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약 100m 두께의 퇴적암층이다. 이후 계속된 화산활동으로 용암이 그 위를 덮으면서 서귀포층은 지하에 자리잡게 되었다. 서귀포층을 구성하는 화산분출물과 해양퇴적물은 제주도 형성 초

20) 고정군·김완병·박찬식·최광식·전용문(2018). 『제주도 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위원회. pp.14-37.

기 화산활동 흔적과 과거의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층 내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어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천지연폭포는 높이 약 22m, 폭 12m이며, 폭포아래는 수심이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 천지연폭포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다른 폭포들은 모두 남쪽 해안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서귀포 주변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단층운동이 발생하여 절벽지형이 형성된 결과로 추정된다. 천지연폭포의 하부에는 화산물질과 해양 퇴적물로 구성된 서귀포층이 분포하고, 그 상부에는 약 40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분포하고 있다. 서귀포층은 계속되는 폭포수의 침식작용에 의해 깎이면서 점점 아래로 깊어져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졌다. 원래 폭포는 지금보다 바다에 더 가까웠으나, 오랜 시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점점 계곡의 상류 쪽으로 이동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약 2.0km에 걸쳐 발달해 있다.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5~6각형의 기둥형태가 흔히 나타난다. 주상절리대는 최대 높이가 25m에 달하며 상부 층으로 갈수록 주상절리가 발달하지 않고 아아용암(aa lava)류의 클링커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산방산은 산 안에 방처럼 생긴 동굴이 있어 산방산이라 이름 붙여졌다. 산방산은 거대한 용암덩어리로 이루어진 높이 약 395m의 중상화산으로 분화구가 없는 용암돔 형태를 하고 있다. 산방산은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용머리 응회환과 함께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표노출 화산지형 중 하나이다. 용머리 응회환이 형성된 후에 응회환을 뚫고 흘러나온 조면암질 용암에 의해 산방산이 형성되었다.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질 용암은 분화구로부터 서서히 흘러나와 멀리 흐르지 못하고 굳어버려 종 모양의 용암돔을 형성하였다. 산방산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화산지형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서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 웅장한 지형으로 2011년에 문화재청 명승 제77호로 지정되었다.

산방산 아래쪽에 자리잡은 용머리해안은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자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머리해안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응회환이다. 용머리 응회환은 얇은 바다(대륙붕)의 부드러운 퇴적물을 뚫고 분출한 강력한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화산분출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화산체가 무너지면서 분화구가 막히게 되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분화구에서 터져 나온 화산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쌓이게 되었는데, 화산재 지층의 단면에서는 이와 같은 화산활동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용머리 해안의 지층은 언뜻 모래가 쌓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에서 상승하다가 차가운 지하수를 만나서 발생한 강력한 화산폭발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마그마와 주변 물질이 가루가 되어 쌓인 것이다. 이처럼 모래크기의 화산재 등이 쌓인 지층을 응회암이라 하며, 용암에 비해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높이 77m의 작은 언덕형태의 오름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월봉은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 중 하나이지만 해안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쇄설암층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가 관찰되어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월봉은 약 18,000년 전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그마가 물을 만나 강력하게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쌓이면서 형성된 응회환의 일부이다. 수월봉 화산쇄설암층에서는 화산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관상의 층리, 화산암괴가 낙하할 때 충격으로 내려앉은 층리(탄낭) 등의 구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화쇄난류가 흘러가며 쌓인 거대연흔 사층리 구조는 감탄을 자아낸다. 이러한 구조들은 수월봉의 화산활동은 물론 전 세계 응회환의 분출과 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우도는 성산일출봉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중앙에는 화산재로 이루어진 소머리오름 응회구(우도봉)가 있고, 마을이 형성된 북서방향으로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해 있다. 우도는 형성초기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강력한 수성화산분출이 발생하여 섬 중앙에 소머리오름으로 불리는 응회구가 만들어지고 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폭발력이 줄어들어 분석과 용암을 분출하는 스톨롬볼리형 분출이 발생하여 섬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용암이 분출하여 현재의 마을을 이루는 용암대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출양상의 변화는 수성화산체가 흔히 겪

는 진화과정이며, 우도는 수성화산의 일반적인 진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변이 존재하는데, 특히 서빈 백사로 알려진 흰색의 홍조단괴 백사장이 있다. 홍조단괴는 성산과 우도 사이의 얇은 바다에서 작은 핵을 중심으로 석회성분을 만드는 홍조류가 구르면서 둥글게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가치로 인해 홍조단괴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약 5.0km 떨어진 섬으로, 하늘에서 날아온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양도는 섬 중앙 비양봉 일대에 2개의 분석구가 있고, 섬의 북서쪽 해안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분석구의 일부가 남아있다. 비양도의 해안은 대부분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화산탄과 ‘애기엎은돌’이 대표적인 지질명소이다. 특히 화산탄은 10톤 규모의 거대한 크기로 직경이 5m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발견된 화산탄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리고 화산탄 분포지 인근에는 ‘애기엎은돌’로 불리는 독특한 바위가 약 20여개 분포하고 있다. 이 바위는 마치 굴뚝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용암이 흐르는 동안 바닥에 물을 만나 소규모 폭발이 발생하여 용암이 뿔어져 나가 만들어진 것으로 용암굴뚝(호니토, hornito)이라 부른다.

선흘곶자왈은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울창한 산림지대이며, 동백동산 습지는 2011년에 람사르(Ramsar) 습지로 지정되었다. 동백동산 습지는 하천이나 호소 유역에 형성된 습지와 달리 곶자왈 지역에 형성된 내륙습지로서 소규모 연못 및 우기 시 습지로 변하는 건습지 등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은 점성이 낮은 파호이호이용암(pahoehoe lava)이 흐르면서 만든 완만한 용암대지에 발달한 독특한 숲을 말하는데, 지표면이 돌투성이라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지 못해 자연적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동백동산에는 먼물깎으로 알려진 습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동식물이 자생하고 보존가치가 높다. 동백동산에는 용암동굴을 비롯하여 용암언덕(튬물러스, tumulus), 붕괴도랑 등 다양한 용암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교래 삼다수 마을은 2017년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추가 지정된 곳이다. 교래 삼다수 마을은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교래곶자왈, 교래리 퇴적층, 맨틀 포획암, 돌문화공원, 산굼부리(천연기념물 제263호) 등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생태학적 측

면에서 삼나무 숲길을 중심으로 붓순나무, 황칠나무와 같은 희귀식물 군락지가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본향당과 산마장, 잣성, 사냥터 등의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

1) 지질공원 탐방로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

제주도가 지난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브랜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활동은 크게 지질공원의 보전과 탐방인프라, 지질공원 교육과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트레일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질공원 대표명소의 가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탐방로와 탐방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월봉, 차귀도, 당산봉 일대의 지질, 역사, 문화, 생태 등을 연계한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코스가 2011년에 개발되어 매년 트레일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가 매년 개최됨에 따라 탐방프로그램이 매년 확대되었으며, 탐방인프라도 매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수월봉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고 낚시꾼들만 방문하던 차귀도에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탐방객을 위한 도항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은 시골 변방 마을을 활성화시킨 주요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2015년과 2016년에 보고서와 논문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²¹⁾²²⁾

이처럼 수월봉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져 2015년 이후에는 매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로 변모되고 있다. 또한 수월봉의 지질공원 활성화 사례를 직

21) 전용문·기진석·고윤정·고정균(2015). 전계보고서, pp.47-55.

22)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전계논문, pp.527-538.

접 보기 위하여 외국을 비롯하여 국내의 많은 지질공원 추진 기관이나 단체들이 수월봉을 방문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산방산, 용머리, 단산, 발자국화석산지를 연결한 ‘산방산·용머리 지질트레일’ 코스가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의 주관으로 만들어졌다.²³⁾ 이들 지역은 억겁의 세월을 품은 지질자원들과 이를 원형으로 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역사, 문화를 콘셉트(concept)로 설정하여 지질트레일 개발이 추진되었다. 2015년에는 기존 코스를 일부 수정 보완한 단축코스가 만들어졌으며, 지오푸드(Geo-Food) 판매점과 지오힌하우스(Geo-House, 일종의 게스트하우스), 지오인포(Geo-Info, 간이 무인 탐방안내소)가 코스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의 일종인 지오엑티비티(Geo-Activity) 가게들도 포함되어 있어 트레일 코스만 걷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지질명소 만장굴이 위치한 김녕리와 월정리 마을을 중심으로 용암동굴과 돌담을 따라 걷는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코스’가 제주시와 제주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코스는 돌담길을 따라 용암의 다양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해안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만장굴을 비롯하여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지하자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농경, 어로문화, 민속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곳으로 민속과 농경 및 어로문화를 콘셉트로 설정하여 지질트레일이 개발되었다. 이곳의 지질트레일은 만장굴 대표명소가 속해 있는 김녕리와 월정리 마을을 중심으로 용암동굴과 다양한 용암지역, 아름다운 바다풍경과 다양한 해양생태계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질트레일 내에는 지오인포, 지오힌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4월에는 지질명소 성산일출봉이 위치한 성산리와 오조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성산·오조 지질트레일’ 코스도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지역은 경관과 수중지질을 갖춘 성산일출봉, 해양문화의 정수인 해녀문화, 해양 생산기술, 내수면의 마을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곳으로 해양문화와 생태를 콘셉트로 설정하여 지질트레일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성산일출

23) 제주관광공사(2016).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 『지오브랜드 백서』, pp.36-43.

봉과 주변 용암지형의 지질 특징과 태평양 전쟁당시 역사 유적을 결합한 코스이다. 성산일출봉과 아름다운 지형경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및 조개서식지 등의 다양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이 위치한 성산리와 오조리를 중심으로 수성화산과 다양한 해양생태계, 근대 역사문화 유적을 볼 수 있는 지질트레일 코스이다.

2) 탐방 및 안내시설

제주도 지질공원은 지속적으로 탐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질공원의 주요 탐방기반시설로는 <표 2-4>와 같이 탐방로, 탐방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뿐만 아니라 이정표, 조형물 등이 있다.²⁴⁾

지질공원 대표명소에는 탐방로가 모두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탐방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탐방안내소에 대한 신축 또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신규 안내소 개설 및 기존 탐방안내소 개·보수 등 지질공원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전시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가고 있다. 탐방안내소가 지질공원 인증 전에 설치된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산방산,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등도 지질공원 인증 후에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2013년 이후에는 수월봉, 용머리해안 및 선흘곶자왓 등 탐방안내소 3개소가 신축되었다. 신축된 탐방안내소에는 대부분 지질공원해설사들이 상주하여 해설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탐방안내소는 지질명소 중 서귀포층과 우도 및 교래 삼다수 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 지질공원 안내판은 13개 명소에 총 108개가 설치되어 있고, 국문-영문 또는 국문-영문-중문-일문으로 제작되었다. 안내판의 문안은 지질전문가가 직접 사진과 그림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지질명소에 설치된 지질공원 조형물은 포토 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기반시설도 모든 대표명소에 갖추어져 있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17). 전계보고서, pp.78.

<표 2-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내 탐방시설현황

대표명소	탐방로	탐방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
한라산	5개로	○	○	9	10
만장굴	1개로	○	○	2	15
천지연 폭포	1개로	○	○	2	2
중문 주상절리	1개로	○	○	1	5
서귀포층	1개로	×	○	1	3
성산일출봉	2개로	○	○	3	8
산방산	1개로	○	○	1	5
용머리	1개로	○	○	1	3
수월봉	1개로	○	○	3	26
선흘 꽃자왈	1개로	○	○	2	6
우도	1개로	×(면사무소)	○	10	10
비양도	1개로	○	○	3	15
교래 삼다수 마을	1개로	×	○	1	5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

1) 지질공원의 인지도

지질공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2011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이후 2017년 현재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무등산권, 청송, 강원 평화지역, 한탄·임진강, 전북 서해안권, 경북 동해안, 강원 고생대 등 총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었다.²⁵⁾

지질공원이 국내에서 제도화되기 이전에 제주도가 이미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제주도는 인증 후 4년마다 거쳐야 하는 재인증을 2014년에 통과함으로써 2018년까지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청송 지질공원이 2017년에,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2018년

25) <http://www.koreageoparks.kr/main.do>

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3곳으로 확대되는 등 세계지질공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비롯해 국가지질공원을 운영중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보존만을 위한 곳이 아닌 그 속에 내재된 지구과학적 가치 및 이와 관련한 인문환경 등을 교육하고, 관광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이러한 혜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발적인 보존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6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위치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3%로 나타났으며, 공무원(78.0%)이 지역주민(60.5%)보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권역별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높았고, 다른 지역 모두 50% 이상이 세계지질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9%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 지역주민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그 밖의 지역도 모두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한편, 수월봉을 찾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유네스코 3관왕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세계자연유산을 떠올리게 된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질공원으로 21%, 생물권보전지역이 7%로 나타났다. 또한 유네스코 3관왕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였다.²⁷⁾ 이처럼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세계자연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도 지질공원 트레일 등 프

26) 유완상·문창규(2016). 국가지질공원의 인지도 조사 및 분석, 『지질학회지』, 52(5), pp.561-574.

27) 전용문·기진석·고윤정·고정군(2015). 전계보고서, pp.47-55.

로그램의 참여가 낮았고, 지질공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월봉 트레일의 탐방객 인식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지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지질공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제주도 지질공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여 지질공원을 알리고 지역주민에게도 지역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지질공원 국제트레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트레일 추진위원회는 제주도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와 관광 활성화 정도, 지역주민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월봉에서 트레일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월봉은 지질학적으로 응회환의 퇴적구조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장소로 알려진 곳이지만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탐방객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수월봉 일대는 지질학적뿐만 아니라 생태 및 역사, 문화적으로 뛰어나 가치를 지닌 곳이다.²⁸⁾ 수월봉은 화쇄난류(pyroclastic surge)에 의해 형성된 응회환(tuff ring)의 퇴적구조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장소이다.²⁹⁾³⁰⁾ 또한 수월봉 일대는 약 10,000년 전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착한 고산리 선사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화살촉과 토기들은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³¹⁾ 그리고 제주도에 태평양 전쟁말기(1944년~1945년)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갯도진지, 비행장과 격납고, 탄약고 등이 남아 있다. 특히 수월봉 해안 갯도에는 미국 군함이 접근하면 곧바로 발진하여 자살공격을 할 수 있는 보트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수월봉 일대에는 다양한

28)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전계논문, pp.527-538.

29) Sohn, Y.K.·Chough, S.K.(1989). Depositional processes of the Suwolbong tuff ring, Cheju Island(Korea), 『Sedimentology』, 36, 837-855.

30) Sohn, Y.K.·Park, K.H.(2005). Composite tuff ring/cone complexes in Jeju Island, Korea: possible consequences of substrate collapse and vent migration.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141, 157-175.

31) Woo, K.S.·Sohn, S.K.·Yoon, S.H.·Ahn, U.S.·Spate, A.(2013). 『Jeju Island Geopark - A Volcanic Wonder of Korea』, Springer Verlag, Berlin, p.88.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수월봉이 천연기념물(제513호)로 지정되었고, 차귀도가 천연보호구역(제422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멸종희귀종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물수리, 매, 바다직바구리, 흑로, 가마우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수월봉은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머리에 해당하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월봉 정상에서 제사의식이 진행되고 있다.³²⁾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월봉 트레일 코스는 수성화산 및 분석구로 이루어진 해안절벽의 지질학적 바탕 위에 다양한 역사, 문화, 생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행사는 현재까지 3개의 마을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들이 추가되면서 탐방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면모되고 있다.³³⁾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에 참여한 250명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지질공원 인지도는 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월봉 트레일 행사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6%로 나타났다. 이 중 탐방로 만족도는 7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설활동의 만족도도 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수월봉 트레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통시설 정비(24%), 홍보강화(22%) 등이 제기되었다.³⁴⁾

한편,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이후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질자원의 가치와 보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풍경뿐만 아니라 지질과 생태, 마을 이야기 등이 해설사가 들려주는 탐방방식이 알려지면서 소수의 전문가들만 방문하던 수월봉에 많은 탐방객과 학생들이 방문하여 마을과 자연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장의 역할을 하는 등 관광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경치관광과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의 한 사례로, 탐방객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이 마을의 가치를 깨닫고 보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고정균·김완병·박찬식·최광식·전용문(2018). 전계보고서, pp.120.

33)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전계논문, pp.527-538.

34) 전용문·기진석·고윤정·고정균(2015). 전계보고서, pp.47-55.

4. 선행연구의 고찰

우리나라에 지질공원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현재까지 10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다. 이는 지질공원이 국내에서 제도화되기 이전인 2010년에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지질공원 제도의 역사로 인해 아직까지 지질공원의 이해도 내지 인지도는 낮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질공원의 가치평가 및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³⁵⁾³⁶⁾³⁷⁾ 또한 지질트레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질공원 활성화 방안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 정도이다.³⁸⁾ 다만, 지질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질관광(geotourism)을 통한 접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질관광은 1995년 영국의 전문 잡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유럽,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일반 관광객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에 초점을 맞춘 소그룹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였다. 지형, 지질자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보편적인 잠재 가능성을 가지며,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개인,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단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⁴⁰⁾

지질관광은 관광자원 중에서 지형·지질자원이 과학적인 우수성, 희귀성, 심미적 매력, 교육적 가치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되어 핵심적인 관광자

35) 이성준·조형성·강가령·손문(2016). 지질유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질학회지』, 52(5), pp.539-560.

36) 문창규·유완상·이수재(2016). 한국형 국가지질공원 제도, 『지질학회지』, 52(5), pp.575-586.

37) 주성욱·우경식(2016). 국내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방향, 『지질학회지』, 52(5), pp.587-608.

38)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전개논문, pp.527-538.

39) 김태영·임종덕(2016). 국가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질학회지』, 52(5), pp.609-622.

40) Azman, N. · Halim, S.A. · Puay, O. · Kommo, I.(2011). "The Langkawi Global Geopark: local community's perspectives on publ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7(3), pp.261-279.

원을 관광대상으로 한 협의의 지질관광에서 지형·지질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후속인 대안관광(alternative)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⁴¹⁾ 협의의 지질관광은 주로 자연지역에 대한 여행으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지질학적 경관이 우수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특수 목적형 관광 유형의 하나로 지오사이트(geosite)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라 할 수 있다.⁴²⁾

이수진(2011)⁴³⁾은 Dowling과 Newsome(2006)⁴⁴⁾의 지질관광의 주요내용과 개념을 정리하면서, 관광(tourism)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첫째는 장소의 매력(attractions)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편리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셋째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탐방 안내소와 전문 가이드를 통한 해설이 일반 대중들에게 환경 문제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구 진화의 증거인 바위, 광물, 화석, 토양, 지형과 풍경 등을 자원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해당 장소를 보전할 수 있다. 다섯째는 지형·지질 자원의 보존과 여행을 통한 관광객 관리가 있어야 한다.

지질관광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시점이 2000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지질관광의 연구는 개념 정립에서부터 활성화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⁵⁾ 이 중 임근욱·진현식·이혁진(2014)⁴⁶⁾의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은 홈페이지와 일부 인쇄물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지오사이트에 대한 교육 환경 및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교육 및 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41) 김종일(2012). 관광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지오투어리즘, 전남발전연구원, p.6.

42) 이수진(2012). 지질관광동기와 서비스품질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3.

43) 이수진(2012). 전개논문, pp.163.

44) Dowling, R.K. and Newsome, D.(2006). "The scope and nature of geotourism", In Dowling, R.E.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7.

45) 김범훈(2016).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총서 23』, pp.109-131.

46) 임근욱·진현식·이혁진(201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사건지리학회』 24(2), pp.53-66.

세계 및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대한 탐방객에 대한 특성 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탐방객 특성과 연계해서는 이수진(2012)⁴⁷⁾이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지질관광동기와 서비스품질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질공원 관광자의 지질관광 동기가 높아지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광객들의 지질관광 동기는 자연매력추구요인, 지적학습추구요인, 신체활동추구요인, 사회성추구요인 순으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관광객들의 서비스품질 인지순위는 자연매력성, 이용편의성, 교육정보성, 직원신뢰성, 배려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유완상·문창규(2016)⁴⁸⁾는 일반국민, 지역주민 및 국가지질공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지질공원의 인지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홍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⁴⁹⁾는 제주도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의 개선해야할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탐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질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특성조사는 극히 한정된 수준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반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하나인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중심의 관광동기, 지역주민의 인식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광정책인식에 관한 연구 등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민재·허석·양승용(2009)⁵⁰⁾은 제주자연유산지구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동기를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탈일상성, 가족친화성, 신기성, 관광매력성, 자연유산성이라는 5개의 동기를 도출하였고, 만장굴은 관광자원형, 한라산은 탈일상친화형, 자연유산형은 생산일출봉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여 각 관광객 특성을 파악하여 자연유산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7) 이수진(2012). 전개논문, p.163.

48) 유완상·문창규(2016). 국가지질공원의 인지도 조사 및 분석, 『지질학회지』, 52(5), pp.561-574.

49)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상위논문, pp.527-538.

50) 오민재·허석·양승용(2009). 세계자연유산지구 관광객의 동기와 특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2), 한국관광학회, pp.303-326.

고미영·허석·양승용(2011)⁵¹⁾은 세계자연유산지구인 거문오름을 중심으로 한 관광동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지구 시장세분화 연구에서 관광동기를 파악하고 동기를 중심으로 시장세분화하여 방문행태를 파악하여 방문객의 관리정책 및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연유산 생태관광지 방문객의 관광동기를 자연체험 및 학습, 일상탈출, 신체활동, 사회성, 신기성요인을 도출하여 관광동기를 파악하고 관광동기를 중심으로 시장세분화를 통해 방문행태를 파악하였다.

조문수·박시사·노경국·오상운(2008)⁵²⁾은 지역주민들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는가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개발 및 보호정책에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유원희·서세진·최병길(2017)⁵³⁾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의 세계적인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인식 경로, 그리고 로고의 인식여부와 세계적인 유산의 등재에 따른 영향 인식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계자연유산과 가장 최근에 등재된 해녀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발담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로고에 대한 인식 여부에서는 유네스코 로고에 대한 노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자원과 유산의 지속적 보호와 더불어 올바른 홍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신동찬(2017)⁵⁴⁾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정책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관광산업관련 관여도에 따라 개념 간 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산

51) 고미영·허석·양승용(2011). 관광동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시장세분화-거문오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4), 한국관광학회, pp.11-30.

52) 조문수·박시사·노경국·오상운(2008).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제주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학연구』, 32(3), pp.167-186.

53) 유원희·서세진·최병길(2017). 제주도 UNESCO 및 UNFAO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비교 -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pp.134-143.

54) 신동찬(2017). 세계자연유산 관광정책 영향인식이 공정성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여도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 21(6), pp.405-427.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2012)⁵⁵⁾은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관광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객 특성을 파악하여 관광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광지의 매력성, 반응성, 편의성은 관광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성과 공감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광지의 매력성, 반응성, 편의성 서비스 품질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서비스 품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관광만족을 통해서 재방문과 추천의사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의 국제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보호의 가치를 상징하며 더불어 이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탐방객 특성 연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55) 이수진(2012).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가관광연구』, 20, pp.69-89.

Ⅲ. 조사 설계

1. 연구가설

1)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수월봉 탐방객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제주도내 지질공원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의 확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탐방형태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형태,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의 탐방형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사회과학연구에서 개념과 변수를 한정짓고, 변수에 대하여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은 연구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이렇게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라 한다.⁵⁶⁾ 본 연구에서 다루는 탐방객, 탐방형태, 탐방동기,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방객

본 연구에서 탐방객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을 찾아 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광 등의 다른 목적으로 찾은 모든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2) 탐방형태

본 연구에서는 수월봉을 탐방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상으로 정의하였으며 방문 경험, 방문횟수, 동반형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 수월봉의 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정 및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56) 박석희(2000). 『관광조사연구기법』, 서울: 일신각, p.119.

대한 인식여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3) 탐방동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탐방동기를 지질공원 대표명소 수월봉을 찾는 목적이나 이유로서 지질공원이나 자연의 학습 등 지적욕구, 단순관광이나 탐방,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로 정의하였다.

(4)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은 방문 전이나 후의 실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트레일이나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 등 탐방환경 및 탐방인프라, 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 조사계획

1) 조사목적

본 연구는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된 수월봉 탐방객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나 탐방형태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 하에 어떤 차이를 보이며 보다 효율적인 탐방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일대를 중심으로 탐방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계획된 이론적 배경을 입증하고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조사지역 및 대상

본 실증조사지역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중 <표 3-1>과 같이 탐방 시설, 해설사 활동 및 지질공원관련 축제 등을 고려하여,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월봉 일대를 선정하였다.

실증조사의 대상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내 대표명소인 수월봉 일대를 방문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표본 추출은 편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였다.

<표 3-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의 관리현황

지질명소	탐방시설					해설사 활동		지질공원 관련 축제	입장료
	탐방로	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안내관	지질 공원	기타*		
한라산	5	유	유	9	10	-	14	-	×
만장굴	1	유	유	2	15	-	20	-	○
천지연폭포	1	유	유	2	2	-	4	-	○
중문주상절리대	1	-	유	1	5	4	4	-	○
서귀포층	1	유	유	1	3	-	-	-	×
성산일출봉	2	유	유	3	8	-	25	-	○
산방산	1	유	유	1	5	-	3	-	○
용머리	1	유	유	1	3	8	3	-	○
수월봉	1	유	유	3	26	8	-	유	×
선흘곶자왓	1	유	유	2	6	4	3	-	×
우도	1	-	유	10	10	-	1	-	×
비양도	1	유	유	3	15	2	-	-	×
교래 삼다수마을	1	-	유	1	5	-	-	-	×

*자연유산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상황을 의미함

3) 조사 시기 및 방법

본 연구의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설문조사의 진행을 위해 사전조사의 개념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적 문제점, 응답자의 응답에 무리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였다.

검토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는 ‘2018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제8차 수월봉 트레일’ 행사기간인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들 행사는 매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위원회에서 주최하여 특정시기를 선정하는데, 비교적 짧은 행사기간에 제주도내외의 많은 탐방객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로 지질공원관련 설문조사에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형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을 이용하였고, 설문지의 회수는 검증 후 원 자료(raw data)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설문지 구성 및 자료의 측정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은 <표 3-2>와 같이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2> 설문지의 구성

조사내용	문항 수	척도
표본의 특성	12	명목, 서열, 등간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12	5점 Likert 척도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	10	5점 Likert 척도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인식	2	5점 Likert 척도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재방문 의도	2	5점 Likert 척도

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통계적 처리가 불가능한 설문과 응답이 누락된 설문 등 본 연구에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탐방형태의 설문에서 세계지질공원 지정 후 개발된 트레일 등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 경험을 묻는 질문은 답변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의 대상이 전체 표본에 질문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체 각 요인에 대한 차이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설문지는 data coding 과정을 통하여 통계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사회과학 조사 분석 통계패키지인 SPSS PASW Statistic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내 대표명소로 지정된 13개소 중에서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수월봉 일대에서 행사기간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38부의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지 30부를 제외하고 총 308부의 자료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본 연구의 실증조사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는 총 308명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22명으로 39.6%이고 여성은 186명으로 60.4%로 구성되었다. 연령구조는 20세 미만이 9명으로 2.9%, 20대가 15명으로 4.9%, 30대가 48명으로 15.6%, 40대가 69명으로 22.4%, 50대가 105명으로 34.1%, 60대가 57명으로 18.5%, 70대 이상은 5명으로 1.6%로 구성되어 50대, 40대의 연령층에 대한 표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현재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49명으로 48.4%였고, 제주도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159명으로 51.6%로 구성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이하가 27명으로 8.8%, 2~5년이 54명으로 17.5%, 6~10년이 34명으로 11.0%, 10년 이상이 193명으로 62.7%를 차지하여 상당수의 응답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는 농업이 24명으로 7.8%, 어업이 2명으로 0.6%, 축산업이 1명으로 0.3%, 자영업이 42명으로 13.6%, 판매·서비스업이 31명으로 10.1%, 공무원이 19명으로 6.2%, 교사·교수가 10명으로 3.2%, 전문직이 71명으로 23.1%, 학생이 23명으로 7.5%, 관광업이 9명으로 2.9%, 기타가 76명으로 24.7%로 나타나 전문직

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영업, 판매·서비스업, 농업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타에서는 전업주부라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2	39.6	
	여	186	60.4	
연령	20세 미만	9	2.9	
	20대	15	4.9	
	30대	48	15.6	
	40대	69	22.4	
	50대	105	34.1	
	60대	57	18.5	
	70대 이상	5	1.6	
거주지	제주도내	고산	23	7.5
		고산 외	126	40.9
	제주도외	159	51.6	
거주기간	1년 이하	27	8.8	
	2~5년	54	17.5	
	6~10년	34	11.0	
	10년 이상	193	62.7	
직업	농업	24	7.8	
	어업	2	0.6	
	축산업	1	0.3	
	자영업	42	13.6	
	판매, 서비스업	31	10.1	
	공무원	19	6.2	
	교사, 교수	10	3.2	
	전문직	71	23.1	
	학생	23	7.5	
	관광업	9	2.9	
	기타	76	24.7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제주도내외 거주자를 기준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여기에서 제주도민은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가 열리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와 용수리 지역의 응답자는 2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5%였고, 고산리와 용수리 지역 외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9%로 구성되었다.

제주도민의 경우 성별은 남성이 71명으로 47.7%이고 여성은 78명으로 52.3%로 구성되었다. 연령구조는 20세 미만이 5명으로 3.4%, 20대가 8명으로 5.4%, 30대가 27명으로 18.1%, 40대가 42명으로 28.2%, 50대가 44명으로 29.5%, 60대가 21명으로 14.1%, 70대 이상은 2명으로 1.3%로 구성되어 50대와 40대의 연령층에 대한 표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년 이하가 17명으로 11.4%, 2~5년이 33명으로 22.1%, 6~10년이 19명으로 12.8%, 10년 이상이 80명으로 53.7%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분포는 농업이 21명으로 14.1%, 어업이 2명으로 1.3%, 자영업이 15명으로 10.1%, 판매 서비스업이 11명으로 7.4%, 공무원이 10명으로 6.7%, 교사나 교수가 6명으로 4.0%, 전문직이 32명으로 21.5%, 학생이 16명으로 10.7%, 관광업이 8명으로 5.4%, 기타 28명으로 18.8%로 나타나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농업, 학생, 자영업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타에서는 전업주부라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경우 성별은 남성이 51명으로 32.1%이고 여성은 108명으로 67.9%로 구성되었다. 연령구조는 20세 미만이 4명으로 2.5%, 20대가 7명으로 4.4%, 30대가 21명으로 13.2%, 40대가 27명으로 17.0%, 50대가 61명으로 38.4%, 60대가 36명으로 22.6%, 70대 이상은 3명으로 1.9%로 구성되어 50대와 60대의 연령층에 대한 표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민과 유사하게 관광객에서도 50대의 연령층에 대한 표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기간은 1년 이하가 10명으로 6.3%, 2~5년이 21명으로 13.2%, 6~10년이 15명으로 9.4%, 10년 이상이 113명으로 71.1%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재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분포는 농업이 3명으로 1.9%, 축산업이 1명으로 0.6%, 자영업이 27명으로

17.0%, 판매 서비스업이 20명으로 12.6%, 공무원이 9명으로 5.7%, 교사나 교수가 4명으로 2.5%, 전문직이 39명으로 24.5%, 학생이 7명으로 4.4%, 기타 48명으로 30.2%로 나타나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영업, 판매 서비스업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타에서는 전업주부라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제주도민		관광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1	47.7	51	32.1
	여	78	52.3	108	67.9
연령	20세 미만	5	3.4	4	2.5
	20대	8	5.4	7	4.4
	30대	27	18.1	21	13.2
	40대	42	28.2	27	17.0
	50대	44	29.5	61	38.4
	60대	21	14.1	36	22.6
	70대 이상	2	1.3	3	1.9
거주기간	1년 이하	17	11.4	10	6.3
	2~5년	33	22.1	21	13.2
	6~10년	19	12.8	15	9.4
	10년 이상	80	53.7	113	71.1
직업	농업	21	14.1	3	1.9
	어업	2	1.3	0	0.0
	축산업	0	0.0	1	0.6
	자영업	15	10.1	27	17.0
	판매, 서비스업	11	7.4	20	12.6
	공무원	10	6.7	9	5.7
	교사, 교수	6	4.0	4	2.5
	전문직	32	21.5	39	24.5
	학생	16	10.7	7	4.4
	관광업	8	5.4	0	0.0
	기타	28	18.8	48	30.2

2)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고산리 수월봉을 방문한 탐방형태를 보면 <표 4-3>과 같다. 먼저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유는 신문·방송을 통해서가 48명으로 15.6%,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가 60명으로 19.5%, 홍보물이 33명으로 10.7%,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가 111명으로 36.0%였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56명으로 18.2%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지질공원 프로그램은 언론매체나 홍보물을 통해서 45.8%가 알게 되었으나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 방문 횟수와 관련해서는 처음이 147명으로 47.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회가 40명으로 13.0%, 3회가 29명으로 9.4%, 4회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자는 92명으로 29.9%로 분석되었다.

동행자 형태는 혼자서 탐방한 응답자가 30명으로 9.7%,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탐방한 경우 106명으로 34.4%, 친구나 동료와 함께 탐방한 경우 149명으로 48.4%, 친목 및 기타단체 형태로 탐방한 경우가 23명으로 7.5%를 차지하였다.

수월봉에 방문할 때의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163명으로 5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렌터카가 94명으로 30.5%,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21명으로 6.8%, 관광버스가 14명으로 4.5%, 기타 16명으로 5.2%로 나타났다.

한편, 수월봉이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여부와 관련 38.6%인 119명이 모르고 있었고, 61.4%인 189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는 경우가 47명으로 15.3%, 모른다가 89명으로 28.6%, 보통은 99명으로 32.1%, 알고 있다가 38명으로 12.3%, 잘 알고 있다가 35명으로 11.4%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23.7%로 모른다는 응답비율인 43.9%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수월봉의 지질공원 대표명소를 알고 있다는 비율인 61.4% 보다 크게 낮은 비율이다. 이는 수월봉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질공원의 이미지를 갖고는 있으나 제주도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는 인식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 표본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	신문·방송	48	15.6
	인터넷·SNS	60	19.5
	홍보물	33	10.7
	주변 사람들	111	36.0
	우연히	56	18.2
수월봉 방문횟수	처음	147	47.7
	2회	40	13.0
	3회	29	9.4
	4회 이상	92	29.9
수월봉 동행자	혼자	30	9.7
	가족·친지와 함께	106	34.4
	친구·동료와 함께	149	48.4
	친목 및 기타단체	23	7.5
수월봉 교통수단	승용차	163	52.9
	렌터카	94	30.5
	대중교통(버스)	21	6.8
	관광버스	14	4.5
	기타	16	5.2
수월봉 지질공원 대표명소 인지	모른다	119	38.6
	알고 있다	189	61.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지	전혀 모른다	47	15.3
	모른다	89	28.6
	보통이다	99	32.1
	알고 있다	38	12.3
	잘 알고 있다	35	11.4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를 제주도내외의 거주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제주도민의 경우 먼저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유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29명으로 19.5%, 인터넷이나 SNS가 29명으로 19.5%, 홍보물이 18명으로 12.1%, 주변 사람들에서가 60명으로 40.3%였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13명으로 8.7%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지질공원 프로그램은 언론매체나 홍보물을 통해서 51.1%가 알게 되었으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서 알게 된 경우도 40.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 방문 횟수와 관련해서는 4회 이상 80명으로 53.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처음이 34명 22.8%, 2회가 14명 9.4%, 3회가 21명 14.1%로 분석되었다.

동행자 형태는 혼자서 탐방한 응답자가 19명으로 12.8%,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탐방한 경우가 50명으로 33.6%, 친구나 동료와 함께한 경우가 65명 43.6%, 친목 및 기타 단체로 탐방한 응답자가 15명인 10.1%를 차지하였다.

수월봉을 방문할 때의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119명으로 79.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렌터카가 6명으로 4.0%,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10명으로 6.7%, 관광버스가 2명으로 1.3%, 기타가 12명으로 8.1%로 나타났다.

한편 수월봉이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여부는 18.1%인 27명이 모르고 있었고, 81.9%인 122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는 경우가 6명으로 4.0%, 모른다가 32명으로 21.5%, 보통이다가 53명으로 35.6%, 알고 있다가 25명으로 16.8%,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3명으로 22.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의 탐방여부를 살펴보면 탐방해 봤다는 응답자가 63명으로 42.3%였으며, 탐방해 본적이 없다는 48명으로 32.2%, 오늘 처음으로 탐방해봤다는 38명으로 25.5%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경우 먼저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유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19명으로 11.9%,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31명으로 19.5%, 홍보물이 15명으로 9.4%,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가 51명으로 32.1%였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43명으로 27.0%로 분석되었다. 제주도민과 비교해볼 때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 방문 횟수와 관련해서는 처음 방문했다는 응답자가 113명으로 71.1%를 차지하여 제주도민과 큰 차이를 보였다. 2회 방문은 26명으로 16.4%, 3회 방문은 8명으로 5.0%로 분석되었다.

<표 4-4>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구분		제주도민		관광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	신문·방송	29	19.5	19	11.9
	인터넷·SNS	29	19.5	31	19.5
	홍보물	18	12.1	15	9.4
	주변 사람들	60	40.3	51	32.1
	우연히	13	8.7	43	27.0
수월봉 방문횟수	처음	34	22.8	113	71.1
	2회	14	9.4	26	16.4
	3회	21	14.1	8	5.0
	4회 이상	80	53.7	12	7.5
수월봉 동행자	혼자	19	12.8	11	6.9
	가족·친지와 함께	50	33.6	56	35.2
	친구·동료와 함께	65	43.6	84	52.8
	친목 및 기타단체	15	10.1	8	5.0
수월봉 교통수단	승용차	119	79.9	44	27.7
	렌터카	6	4.0	88	55.3
	대중교통(버스)	10	6.7	11	6.9
	관광버스	2	1.3	12	7.5
	기타	12	8.1	4	2.5
수월봉 지질공원 대표명소 인지	모른다	27	18.1	92	57.9
	알고 있다	122	81.9	67	42.1
유네스코 제주지질공원 인지	전혀 모른다	6	4.0	41	25.8
	모른다	32	21.5	57	35.8
	보통이다	53	35.6	46	28.9
	알고 있다	25	16.8	13	8.2
	잘 알고 있다	33	22.1	2	1.3

동행자 형태는 혼자서 탐방한 응답자가 11명으로 6.9%,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는 56명으로 35.2%, 친구나 동료와 함께는 84명으로 52.8%, 친목 및 기타단체 형

태가 8명으로 5.0%를 차지하였다.

수월봉에 올 때의 교통수단으로는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경우가 88명으로 5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승용차가 44명으로 27.7%,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이 11명으로 6.9%, 관광버스가 12명으로 7.5%, 기타는 4명으로 2.5%로 나타났다.

수월봉이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여부는 57.9%인 92명이 모르고 있었고, 42.1%인 67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는 경우가 41명으로 25.8%, 모른다가 57명으로 35.8%, 보통이다가 46명으로 28.9%, 알고 있다는 13명으로 8.2%, 잘 알고 있다가 2명으로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객의 경우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탐방형태는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서는 관광객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제주도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월봉의 방문 횟수도 처음 방문하였다는 비율이 관광객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동반 형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유사하였다. 그리고 교통수단은 제주도민은 승용차를, 관광객은 렌터카 이용이 높았다. 수월봉의 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정이나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인지 여부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민의 경우 수월봉의 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정이나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상당수가 알고 있는 반면 관광객은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관광객의 9.5% 정도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지질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하는 전략마련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신뢰성 검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설문과 같은 어떤 측정도구를 반복

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가 알아내려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뢰성 측정 방법으로는 재측정법(Retest Method), 항목이분할법(Split-Halves Method) 그리고 내적일치도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이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개념을 묻는 비슷한 질문들을 해서 응답자들이 비슷하게 대답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내적일치도법이다.⁵⁷⁾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계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계수이다. 이 알파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서 1에 가까울수록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서로 유사해서 신뢰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 값이 어느 정도여야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나 대체로 0.8 이상이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측정이라고 본다. 신뢰도가 0.6 이상인 경우는 아쉬운 대로 쓸만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⁸⁾

1)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신뢰성 검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항목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와 같이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4.38점)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3.88점),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3.73점),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3.6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등 지질공원관련 항목에서 3.34~3.48점의 범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2.64점),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2.82점) 항목에서는 보통인 3.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외의 항목은 보통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탐방동기가 비교적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탐방동기 항목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

57) 서의훈(2000). 『SPSS 7.5 한글판을 이용한 SPSS 통계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자유아카데미, pp. 110-111.

58) 서의훈(2000). 상계서, pp.111-112.

과계수가 0.789로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목별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계수 0.750~0.805 범위를 보여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5>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전체(N=308)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삭제 Cronbach 알파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3.34 (1.231)	0.765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3.48 (1.204)	0.760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3.46 (1.209)	0.750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3.37 (1.266)	0.752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3.64 (1.188)	0.757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4.38 (0.791)	0.776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3.32 (1.163)	0.780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3.41 (1.203)	0.778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2.64 (1.357)	0.805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2.82 (1.342)	0.800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3.73 (1.166)	0.772
여가를 즐기기 위해	3.88 (1.108)	0.783
전체 Cronbach 알파		0.789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항목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제주도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4-6>과 같이 제주도민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4.40점)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3.99점),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3.92점),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3.90점),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3.89점),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3.8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2.42점)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2.57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의 항목에서는 3.14~3.81점의 범위로 보통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 탐방동기가 비교적 뚜렷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제주도민(N=149)		관광객(N=159)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삭제 Cronbach 알파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삭제 Cronbach 알파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3.85 (1.101)	0.793	2.87 (1.162)	0.763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3.89 (1.041)	0.794	3.09 (1.219)	0.752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3.92 (1.010)	0.785	3.04 (1.227)	0.74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3.72 (1.196)	0.793	3.04 (1.244)	0.740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3.99 (1.056)	0.791	3.30 (1.210)	0.750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4.40 (0.778)	0.800	4.36 (0.806)	0.774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3.14 (1.230)	0.801	3.50 (1.073)	0.775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3.24 (1.195)	0.801	3.57 (1.193)	0.770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2.42 (1.311)	0.826	2.85 (1.370)	0.799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2.57 (1.296)	0.824	3.06 (1.347)	0.789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3.90 (1.057)	0.801	3.57 (1.240)	0.769
여가를 즐기기 위해	3.81 (1.147)	0.805	3.94 (1.069)	0.781
전체 Cronbach 알파		0.815		0.783

관광객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4.36점)가 가장 높은 탐방동기를 보였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3.94점),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3.57점),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3.57점),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3.30점)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2.85점),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탐방하기 위해'(2.87점)가 낮게 나타났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중간정도의 평균값을 보였다.

탐방동기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알파계수가 제주도민은 0.815였고, 관광객은 0.783으로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월봉 일대를 탐방하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구분 없이 탐방객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탐방동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질공원과 관련된 탐방동기 측면에서는 제주도민에 비해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 반면 여행이나 관광측면에서 탐방하게 되었다는 동기에서는 관광객의 탐방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신뢰성 검증

(1)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운영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항목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7>과 같이 '자연환경에 만족한다'(4.42점),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4.28점),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4.07점)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평균값이 3.60~3.85점의 범위를 보여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알파계수가 전체 탐방객인 경우 0.937로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 항목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표 4-8>과 같이 제주도민의 경우는 '자연환경에 만족한다'(4.50점),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4.35점),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4.20점),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4.12점)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3.76~3.98점의 범위로 평균값이 나타나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전체(N=308)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삭제 Cronbach 알파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3.81 (1.052)	0.933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4.07 (0.915)	0.927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3.68 (0.987)	0.927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3.60 (1.024)	0.924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팸플릿 등)에 만족한다	3.65 (1.002)	0.924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3.62 (1.040)	0.926
방문시설의 이용편리성에 대해 만족한다	3.63 (0.988)	0.925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	3.85 (0.958)	0.926
자연환경에 만족한다	4.42 (0.733)	0.935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	4.28 (0.834)	0.931
전체 Cronbach 알파		0.937

관광객의 경우 ‘자연환경에 만족한다’(4.35점),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4.21점)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3.96점),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3.7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평균값이 3.43~3.57점 범위에 포함되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알파계수는 제주도민인 경우 0.937이었고, 관광객은 0.907로 나타나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월봉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 수월봉 일대의 자연환경이나 탐방분위기는 제주도민과 탐방객 모두가 가장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지질공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표 4-8>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제주도민(N=149)		관광객(N=159)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삭제 Cronbach 알파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삭제 Cronbach 알파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4.12 (0.951)	0.952	3.52 (1.061)	0.903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4.20 (0.908)	0.948	3.96 (0.909)	0.894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3.79 (1.042)	0.945	3.57 (0.924)	0.898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3.77 (1.079)	0.945	3.43 (0.945)	0.893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팸플릿 등)에 만족한다	3.85 (1.023)	0.945	3.45 (0.946)	0.891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3.83 (1.038)	0.945	3.43 (1.010)	0.896
방문시설의 이용편리성에 대해 만족한다	3.76 (1.031)	0.946	3.52 (0.934)	0.893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	3.98 (1.010)	0.947	3.72 (0.892)	0.894
자연환경에 만족한다	4.50 (0.732)	0.954	4.35 (0.730)	0.906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	4.35 (0.846)	0.950	4.21 (0.820)	0.903
전체 Cronbach 알파		0.953		0.907

한편,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홍보활동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9>와 같이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3.22점),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2.29점)는 중간정도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알파계수는 0.830으로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9> 지질공원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전체(N=308)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Cronbach 알파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99 (1.170)	0.830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3.22 (1.152)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4-10>과 같이 제주도민의 경우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3.54점),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3.28점)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관광객의 경우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2.93점),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2.72점)는 보통 이하의 반응을 보여 제주도민의 반응과 차이를 보였다.

<표 4-10>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홍보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제주도민(N=149)		관광객(N=159)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Cronbach 알파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Cronbach 알파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3.28 (1.115)	0.845	2.72 (1.158)	0.789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3.54 (1.112)		2.93 (1.114)	

이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알파계수는 제주도민인 경우는 0.845였고, 관광객은 0.789로 나타나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관광객이 지질공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재방문 의향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과 방문의향 항목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 <표 4-11>과 같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재방문하겠다’(4.47점),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하도록 추천하겠다’(4.44점)는 높은 평균값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재방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알파계수는 0.904로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1>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문 의향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전체(N=308)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Cronbach 알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재방문하겠다	4.47 (0.667)	0.904
주변사람들에게 방문하도록 추천하겠다	4.44 (0.717)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4-12>와 같이 제주도민의 경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재방문하겠다’(4.48점),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하도록 추천하겠다’(4.43점)는 높은 평균값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관광객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재방문하겠다’(4.46점),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하도록 추천하겠다’(4.45점)는 높은 평균값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재방문 의향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알파계수는 제주도민인 경우 0.913이었고, 관광객은 0.892로 나타나 항목의 측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재방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의향에 대해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구분 없이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재방문 의향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

항목	제주도민(N=149)		관광객(N=159)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Cronbach 알파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Cronbach 알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재방문하겠다	4.48 (0.713)	0.913	4.46 (0.624)	0.892
주변사람들에게 방문하도록 추천하겠다	4.43 (0.808)		4.45 (0.623)	

3.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증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 기준에 의한 타당성, 개념타당성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내용타당성이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준에 의한 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념타당성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 자체의 타당성을 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⁵⁹⁾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크게 다속성 다측정 방법(multi-trait multi-method matrix)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있는데,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특정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일련의 관측된 변수들을 근거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개념(construct)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⁶⁰⁾ 즉, 서로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이 가지고

59)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아래, pp.145-224.

있는 정보를 소수 몇 개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분석으로서, 통계적 모형에서 관측되는 변수들과 소수 몇 개의 잠재적인 요인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본래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합성변수(요인)로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의 한 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높이기 위해서 베리맥스 회전(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요인에 대한 점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이 되는 요인만을 인정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의 표현적합도를 산출하여 변수들 간의 내부상 상관관계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유의확률로 파악하게 되는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였다.⁶¹⁾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3>, <표 4-14>와 같다.

1)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의 타당성 검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12개 항목이 3개의 요인으로 <표 4-13>과 같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0.941, 0.702, 0.687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39.8%에서 86.3%까지 설명되었고, 전체 변량은 요인별로 35.08%, 18.13%, 15.49%로 설명되어 전체적으로 68.70%를 보였다. 또한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Kaiser-Mryer-Olkin)의 값이 0.828로 나타나 0.50 이상으로 요인분석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Bartlett 검정에서도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수렴된 탐방동기의 요인은 지질공원이나 자연의 학습 등 ‘지적육구’, ‘단순관광이나 탐방’, ‘경관감상 및 휴식·여가’로 각각 명명하여 요약할 수 있었다.

60) 정충영·최이규(2009).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p.171.

61) 이수진(2009). 전계논문, p.94.

<표 4-13> 탐방동기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증

요인명	항목*	성분 (요인적재량)			공통성	항목제거 신뢰도 계수	신뢰도 계수
		지적욕구	단순관광/ 탐방	경관감상/ 휴식·여가			
지적욕구	배움 기회	0.927	-0.054	0.016	0.863	0.920	0.941
	진정성	0.915	0.016	0.117	0.851	0.919	
	환경·생태	0.890	-0.045	0.130	0.811	0.925	
	탐방 참여	0.883	-0.065	0.009	0.783	0.932	
	연구·학습	0.850	0.065	0.129	0.743	0.937	
단순관광/ 탐방	여행코스	0.088	0.785	0.202	0.665	0.588	0.702
	관광지	0.046	0.776	0.224	0.654	0.590	
	우연히	-0.149	0.682	0.082	0.494	0.663	
	권유	-0.008	0.637	-0.014	0.406	0.708	
경관감상/ 휴식·여가	여가	-0.064	0.215	0.871	0.767	0.792	0.687
	활력	0.146	0.150	0.850	0.810	0.417	
	경관	0.403	0.068	0.481	0.398	0.423	
고유치		4.210	2.175	1.859			
분산설명력(%)		35.083	18.127	15.489			
누적분산설명력(%)		35.083	53.211	68.699			

KMO=0.828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2081.088$ 유의확률=0.000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 수렴된 요인들의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첫째는 지질공원이나 자연의 학습 등 ‘지적욕구’ 동기에는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탐방하기 위해,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등 5개의 측정변수가 수렴되었다. 둘째는 ‘단순관광이나 탐방’ 동기에는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등으로 4개의 측정변수가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관감상 및 휴식·여가’ 동기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등으로 3개의 측정변수가 수렴되었다.

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타당성 검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12개 항목이 3개의 요인으로 <표 4-14>와 같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0.935, 0.847, 0.830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54.3%에서 85.8%까지 설명되었고, 전체 변량은 요인별로 56.08%, 11.53%, 8.4%로 설명되어 전체적으로 76.04%를 보였다. 또한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Kaiser-Mryer-Olkin)의 값이 0.903으로 나타나 0.50 이상으로 요인분석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Bartlett 검정에서도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증

요인명	항목*	성분 (요인적재량)			공통성	항목제거 시 신뢰도 계수	신뢰도 계수
		탐방 인프라	탐방환경	홍보			
탐방 인프라	다양성	0.844	0.222	0.158	0.787	0.922	0.935
	홍보물	0.839	0.203	0.231	0.798	0.922	
	안내소	0.830	0.182	0.196	0.761	0.924	
	안내판	0.811	0.237	0.086	0.721	0.926	
	편리성	0.786	0.285	0.164	0.725	0.924	
	차별성	0.641	0.493	0.201	0.694	0.928	
	해설안내	0.638	0.239	0.280	0.543	0.935	
	트레일코스	0.635	0.533	0.062	0.691	0.929	
탐방환경	자연환경	0.214	0.890	0.098	0.847	-	0.847
	분위기	0.344	0.850	0.096	0.850	-	
홍보	인터넷	0.158	0.142	0.902	0.858	-	0.830
	자료습득	0.258	0.046	0.884	0.850	-	
고유치		6.730	1.383	1.012			
분산설명력(%)		56.083	11.526	8.429			
누적분산설명력(%)		56.083	67.608	76.038			

KMO=0.903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2664.224$ 유의확률=0.000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과 <표 4-9>에 제시되었음

요인분석 결과 수렴된 탐방프로그램 운영은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홍보’로 각각 명명하여 요약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 수렴된 요인들의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첫째는 ‘탐방인프라’는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각종 해설·안내·홍보물에 만족한다,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방문시설의 이용편리성에 대해 만족한다,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등으로 8개의 항목을 수렴하였다, 둘째는 ‘탐방환경’은 자연환경에 만족한다,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 등 2개의 항목이 수렴되었고, 마지막으로 ‘홍보’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등 2개의 항목이 수렴되었다.

4. 연구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탐방형태,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형태,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탐방형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T 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다만, 탐방객의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차이분석은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20세 미만과 20대를 합쳐서 20대 이하로, 60대와 70대 이상을 60대 이상으로 표본을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1)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형태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탐방형태의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먼저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별($p<0.05$), 연령($p<0.01$), 거주지($p<0.01$)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있었으나 거주기간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별에서 남녀 모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자는 신문·방송을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인터넷·SNS를 통해 알게 된 비율이 높는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자인 경우 신문·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30대 탐방객인 경우 인터넷·SNS를 통해 프로그램을 인지한 경우가 많고, 50대와 60대에서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적인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제주도민은 신문·방송과 인터넷·SNS를 통해 알게 된 반면 관광객은 우연히 알게 되거나 인터넷·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것이 차이가 있었다.

수월봉 방문 횟수는 연령대를 제외한 성별($p<0.01$), 거주지($p<0.001$), 거주기간($p<0.01$) 및 직업($p<0.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성별에서는 남자는 4회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여자는 처음 탐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도 성별과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년 이하에서는 처음 방문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5년 이상부터는 4회 이상이라 응답하는 탐방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1차 산업이나 공무원, 교사·교수인 경우 4회 이상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이나 서비

<표 4-15>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탐방형태 교차분석표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					직업(%)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주도 내	제주도 외	1년 이하	2-5년	5-10년	10년 이상	1차 산업	자영업	서비스, 관광업	공무원, 교사, 교수	전문직	학생	기타	
			18.919	33.952	9.4	6.2	0.3			1.6	1.3	12.3	17.704								32.366
프로그램 인지 방법	언론	8.4	7.1	1.0	1.3	4.2	5.2	3.9	9.4	6.2	0.3	1.6	1.3	12.3	1.6	2.6	1.3	1.3	4.2	1.3	3.2
	인터넷	6.5	13.0	1.6	6.5	5.8	3.2	2.3	9.4	10.1	3.6	4.2	2.6	9.1	1.6	0.6	1.9	2.6	6.2	2.9	5.2
	홍보물	2.9	8.1	1.0	0.3	1.6	5.2	2.6	5.8	4.9	0.6	1.9	1.3	6.8	4.2	2.3	0.6	1.3	2.9	0.6	1.3
	사람들	15.9	20.1	2.3	4.9	7.1	14.6	7.1	19.5	16.6	2.3	6.5	3.6	23.7	1.3	4.9	3.9	3.9	6.5	3.9	8.8
	우연히	6.2	12.0	1.9	2.6	3.6	5.8	4.2	4.2	14.0	1.9	3.2	2.3	10.7	1.3	3.2	2.3	0.3	3.2	1.6	6.2
χ^2	10.208				33.952			18.919			17.704										
p	0.037				0.006			0.001			0.125										0.118
수일방 방문 횟수	처음	15.3	32.5	4.2	8.1	9.1	17.2	9.1	11.0	36.7	4.9	7.1	4.5	31.2	1.6	8.4	6.5	2.9	9.4	3.6	15.3
	2회	5.2	7.8	1.0	2.9	1.9	4.9	2.3	4.5	8.4	1.3	2.3	1.0	8.4	0.3	1.3	1.0	2.3	3.9	1.3	2.9
	3회	2.6	6.8	0.3	1.0	3.6	2.6	1.9	6.8	2.6	1.6	3.9	1.3	2.6	0.3	0.3	1.0	1.0	1.6	2.3	2.9
	4회	16.6	13.3	2.3	3.6	7.8	9.4	6.8	26.0	3.9	1.0	4.2	4.2	20.5	6.5	3.6	1.6	3.2	8.1	3.2	3.6
	χ^2	14.971				10.422			101.927			24.684									
p	0.002				0.579			0.000			0.003										0.000
수일방 동행 형태	혼자	3.9	5.8	0.3	1.6	2.6	1.6	3.6	6.2	3.6	0.3	2.6	1.0	5.8	1.9	1.0	0.3	1.0	2.6	0.6	0.9
	가족	14.6	19.8	5.2	4.5	10.7	8.1	5.8	16.2	18.2	5.2	6.8	4.5	17.9	1.9	3.6	3.2	3.6	6.2	4.9	5.0
	친구	16.9	31.5	1.6	9.1	8.1	20.8	8.8	21.1	27.3	3.2	6.8	5.2	33.1	3.6	7.8	5.8	4.9	11.4	3.9	4.2
	기타	4.2	3.2	0.6	0.3	1.0	3.6	1.9	4.9	2.6	0.0	1.3	0.3	5.8	1.3	1.3	0.6	9.4	2.9	1.0	1.0
	χ^2	4.492				38.024			6.709			16.448									
p	0.213				0.000			0.082			0.058										0.073

<표 4-15> 계속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					직업(%)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주도 내	제주도 외	1년 이하	2-5년	5-10년	10년 이상	1차 산업	자영업	서비스 관련업	공무원 교사, 교수	전문직	학생	기타
승용차	24.7	28.2	3.9	8.4	15.3	17.2	8.1	38.6	14.3	5.8	10.1	6.5	30.5	4.9	6.5	5.2	5.5	13.0	6.2	11.7
렌터카	10.1	20.5	3.6	5.5	5.2	11.7	4.5	1.9	28.6	2.9	3.9	3.6	20.1	0.3	5.5	2.9	2.6	7.1	2.6	9.4
수월봉	1.3	5.5	0.3	1.3	1.0	1.6	2.6	3.2	3.6	0.0	2.6	0.0	4.2	0.6	0.0	0.6	0.3	2.3	1.0	1.9
교통	1.3	3.2	0.0	0.3	0.0	2.3	1.9	0.6	3.9	0.0	1.0	0.3	3.2	0.3	1.0	1.0	0.3	0.3	0.6	1.0
수단	2.3	2.9	0.0	0.0	1.0	1.3	2.9	3.9	1.3	0.0	0.0	0.6	4.5	2.6	0.6	0.3	0.6	0.3	0.0	0.6
χ^2	9.622		39.383					117.030			20.282					56.034				
p	0.047		0.001					0.000			0.062					0.000				
모름	12.7	26.0	3.2	6.8	7.1	14.0	7.5	8.8	29.9	3.6	6.5	4.5	24.0	1.0	5.2	5.8	1.6	9.4	3.6	12.0
인지	26.9	34.4	4.5	8.8	15.3	20.1	12.7	39.6	21.8	5.2	11.0	6.5	38.6	7.8	8.4	4.2	7.8	13.6	6.8	12.7
χ^2	3.790		2.249					51.239			0.208					22.795				
p	0.052		0.690					0.000			0.976					0.001				
모름	15.9	28.2	3.9	7.1	8.4	17.2	7.5	12.3	31.8	4.9	7.1	4.5	27.6	1.6	6.8	6.8	2.6	9.7	3.6	13.0
보통	13.3	18.8	2.3	6.5	9.4	7.8	6.2	17.2	14.9	3.2	7.5	2.6	18.8	1.3	4.9	2.3	4.2	6.2	3.9	9.4
인지	10.4	13.3	1.6	1.9	4.5	9.1	6.5	18.8	4.9	0.6	2.9	3.9	16.2	5.8	1.9	1.0	2.6	7.1	2.9	2.3
χ^2	1.409		14.167					52.024			18.012					52.789				
p	0.494		0.078					0.000			0.115					0.000				

*항목의 전체내용은 <부록 1. 설문지> 일반적인 사항에 제시된 질문 및 응답항목을 표현한 것임

스·관광업인 경우는 처음 탐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전문직인 경우 처음 탐방과 4회 이상 탐방한다는 비율이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수월봉에 동행 형태는 연령($p<0.001$)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성별, 거주지, 거주기간 및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20대와 40대에서는 가족·친지와 함께 수월봉을 탐방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친구·동료와 탐방했다는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수월봉을 찾을 때의 교통수단은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는 성별($p<0.05$), 연령($p<0.01$), 거주지($p<0.001$) 및 직업($p<0.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인 경우 렌터카, 대중교통이나 관광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승용차나 렌터카의 이용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지만 50대에서 관광버스 이용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제주도민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관광객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1차 산업이라 응답한 탐방객이 교통수단으로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수월봉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p<0.001$) 및 직업($p<0.01$)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주지에 따라서는 제주도민은 수월봉의 대표명소 지정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관광객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서비스·관광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수월봉 대표명소를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인지 여부는 거주지($p<0.001$)와 직업별($p<0.001$)로 차이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주지에 따라서는 수월봉의 대표명소 지정여부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직업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탐방객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성별, 연령이나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월봉의 방문횟수는 거주지나 직업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성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월봉을 찾는 교통수단은 거주지와 직업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월봉이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이면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인지 여부는 거주지와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2)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차이분석

인구통계 특성(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때 사용하는 t-검정과 두 집단 이상 간에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인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탐방객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4-16>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탐방객의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4-17>과 같이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목($F=6.066, p<0.01$),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목($F=2.724, p<0.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의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의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은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농업·어업·축산업을 1차 산업으로, 판매와 서비스업 및 관광업을 서비스 및 관광업으로, 공무원과 교사·교수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18>과 같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항목($F=4.346, p<0.001$),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항목($F=4.135, p<0.01$),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항목($F=3.267, p<0.0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항목($F=3.267, p<0.01$),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표 4-16> 성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t	유의확률 (p값)
	남자(N=122)	여자(N=186)		
탐방 참여	3.43	3.28	1.042	0.298
배움 기회	3.50	3.46	0.268	0.789
진정성	3.55	3.41	1.032	0.303
연구·학습	3.48	3.31	1.146	0.253
환경·생태	3.67	3.61	0.427	0.669
경관 감상	4.27	4.45	-1.914	0.057
관광지	3.36	3.30	0.439	0.661
여행코스	3.39	3.42	-0.281	0.779
우연히	2.70	2.60	0.684	0.495
권유	2.88	2.78	0.588	0.557
활력	3.61	3.80	-1.374	0.170
여가	3.85	3.90	-0.351	0.726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표 4-17>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20대 이하 (N=24)	30대 (N=48)	40대 (N=69)	50대 (N=105)	60대 이상 (N=62)		
탐방 참여	3.54	3.27	3.46	3.23	3.39	0.607	0.658
배움 기회	3.54	3.56	3.59	3.30	3.55	0.831	0.506
진정성	3.54	3.31	3.49	3.39	3.65	0.665	0.617
연구·학습	3.42	3.46	3.38	3.25	3.50	0.472	0.756
환경·생태	3.63	3.73	3.68	3.48	3.79	0.834	0.504
경관 감상	4.46	4.50	4.39	4.25	4.45	1.201	0.310
관광지	3.08	3.15	3.07	3.27	3.94	6.066	0.000
여행코스	3.21	3.35	3.22	3.35	3.84	2.724	0.030
우연히	2.83	2.58	2.46	2.68	2.74	0.537	0.709
권유	2.88	2.85	2.72	2.78	2.95	0.273	0.895
활력	3.88	3.73	3.67	3.58	3.98	1.313	0.265
여가	4.00	3.79	3.78	3.87	4.03	0.574	0.682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알기 위해' 항목($F=2.236$, $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방객의 탐방동기가 제주의 지질공원이나 환경, 생태에 대한 학습과 같은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업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8>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1차 산업 (N=27)	자영업 (N=42)	서비스, 관광업 (N=31)	공무원, 교사, 교수 (N=29)	전문직 (N=71)	학생 (N=32)	기타 (N=76)		
탐방 참여	3.81	3.12	3.10	3.69	3.66	3.53	2.89	4.346	0.000
배움 기회	3.89	3.24	3.23	3.72	3.85	3.63	3.07	4.135	0.001
진정성	3.93	3.36	3.35	3.79	3.65	3.66	3.03	3.326	0.003
연구·학습	3.78	3.17	3.35	3.55	3.73	3.38	2.95	3.267	0.004
환경·생태	3.96	3.48	3.55	2.93	3.85	3.72	3.30	2.236	0.040
경관 감상	4.22	4.38	4.39	4.41	4.45	4.41	4.33	0.336	0.918
관광지	3.37	3.69	3.29	3.31	3.18	3.03	3.38	1.255	0.278
여행코스	3.30	3.57	3.35	3.21	3.30	3.31	3.61	0.787	0.581
우연히	2.30	3.00	2.81	2.59	2.41	2.69	2.71	1.259	0.276
권유	2.30	2.86	3.26	2.90	2.83	2.69	2.83	1.318	0.249
활력	3.78	3.64	3.68	3.83	3.68	3.91	3.71	0.238	0.964
여가	3.67	3.95	3.97	3.72	3.79	3.91	4.01	0.587	0.741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를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된 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9>와 같이 지질공원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인 경우는 직업($F=4.156$, $p<0.001$)에서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공원의 단순한 관광이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인 경우는 연령($F=2.656$, $p<0.05$) 특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휴식과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탐

방인 경우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분산분석

특성	항목	N	지적욕구		단순관광/탐방		경관감상/휴식·여가	
			평균	F(p)	평균	F(p)	평균	F(p)
성별	남성	122	3.53	2.711 (0.385)	3.43	0.162 (0.609)	3.45	1.596 (0.151)
	여성	186	3.41		3.44		3.49	
연령	20대 이하	24	3.53	0.619 (0.650)	3.00	2.656 (0.033)	4.11	1.170 (0.324)
	30대	48	3.47		2.98		4.01	
	40대	69	3.52		2.87		3.95	
	50대	105	3.33		3.02		3.90	
	60대 이상	62	3.58		3.37		4.15	
직업	1차 산업	27	3.87	4.156 (0.000)	2.82	1.238 (0.287)	3.89	0.145 (0.990)
	자영업	42	3.27		3.28		3.94	
	서비스/관광업	31	3.28		3.18		4.01	
	공무원/교사, 교수	29	3.54		3.00		3.99	
	전문직	71	3.75		2.93		3.97	
	학생	32	3.58		2.93		3.62	
	기타	76	3.17		3.13		4.02	

이들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에는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직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탐방객의 연령대에 따라서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동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인구통계 특성(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20>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운영항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성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t	유의 확률 (p값)
	남자(N=122)	여자(N=186)		
해설안내	3.89	3.75	1.149	0.251
트레일 코스	4.11	4.05	0.494	0.621
안내판	3.63	3.71	-0.682	0.496
다양성	3.61	3.59	0.240	0.810
홍보물	3.61	3.67	-0.444	0.657
안내소	3.64	3.61	0.218	0.828
편리성	3.60	3.66	-0.500	0.618
차별성	3.75	3.91	-1.386	0.167
자연환경	4.39	4.44	-0.554	0.580
분위기	4.20	4.32	-1.212	0.226
자료습득	3.02	2.98	0.278	0.781
인터넷	3.25	3.21	0.269	0.788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과 <표 4-9>에 제시되었음

탐방객의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21>과 같이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F=2.444$, $p<0.05$),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팸플릿 등)에 만족한다’ 항목($F=2.356$, $p<0.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에 따라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내용이나 각종 홍보물에서 만족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방객의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22>와 같이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항목($F=3.691$, $p<0.01$), ‘탐방 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항목($F=3.079$, $p<0.01$),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항목($F=3.740$, $p<0.01$),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항목($F=3.998$, $p<0.01$)에서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F=2.714$, $p<0.05$),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팸플릿 등)에 만족한다’ 항목($F=2.559$, $p<0.05$)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지질공원과 연계된 운영이나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만족정도에 많은 차이가

<표 4-21> 연령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20대 이하 (N=24)	30대 (N=48)	40대 (N=69)	50대 (N=105)	60대 이상 (N=62)		
해설안내	3.79	3.75	3.83	3.63	4.15	2.444	0.047
트레일 코스	4.08	4.04	3.96	4.05	4.27	1.064	0.375
안내판	3.79	3.60	3.58	3.63	3.89	1.080	0.366
다양성	3.71	3.58	3.45	3.53	3.84	1.404	0.233
홍보물	3.92	3.54	3.52	3.52	3.97	2.889	0.023
안내소	3.88	3.73	3.54	3.44	3.85	2.231	0.066
편리성	3.75	3.58	3.49	3.58	3.87	1.443	0.220
차별성	3.92	3.92	3.65	3.81	4.05	1.544	0.189
자연환경	4.33	4.42	4.51	4.35	4.48	0.665	0.617
분위기	4.38	4.31	4.12	4.26	4.42	1.218	0.303
자료습득	3.25	2.73	3.06	2.90	3.18	1.498	0.203
인터넷	3.42	3.27	3.29	3.00	3.42	1.697	0.151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과 <표 4-9>에 제시되었음

<표 4-22> 직업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1차 산업 (N=27)	자영업 (N=42)	서비스, 관광업 (N=31)	공무원, 교사, 교수 (N=29)	전문직 (N=71)	학생 (N=32)	기타 (N=76)		
해설안내	4.11	3.55	3.84	4.00	4.00	4.00	3.50	2.714	0.014
트레일 코스	4.19	4.12	3.90	4.21	4.20	4.09	3.91	0.999	0.426
안내판	3.85	3.88	3.58	3.76	3.77	3.81	3.37	2.015	0.063
다양성	3.81	3.55	3.32	3.90	3.87	3.72	3.24	3.691	0.001
홍보물	3.85	3.57	3.42	3.90	3.82	3.88	3.36	2.559	0.020
안내소	3.78	3.64	3.45	3.97	3.77	3.88	3.25	3.079	0.006
편리성	3.72	3.64	3.35	4.03	3.62	3.84	3.47	1.868	0.086
차별성	3.89	3.88	3.58	4.17	3.86	3.94	3.75	1.157	0.329
자연환경	4.44	4.45	4.42	4.48	4.52	4.19	4.38	0.847	0.535
분위기	4.22	4.26	4.19	4.38	4.38	4.19	4.24	0.414	0.870
자료습득	3.37	3.02	2.58	3.41	3.18	3.16	2.61	3.740	0.001
인터넷	3.59	3.12	2.94	3.59	3.48	3.44	2.80	3.998	0.001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과 <표 4-9>에 제시되었음

있음을 의미한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요인분석에 의해 수렴된 요인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탐방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는 직업($F=2.670$, $p<0.05$)에서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의 탐방환경에서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직업($F=4.508$, $p<0.001$)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3>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산분석

특성	항목	N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홍보	
			평균	F(p)	평균	F(p)	평균	F(p)
성별	남성	122	3.73	0.806 (0.903)	4.34	0.620 (0.334)	3.14	0.032 (0.767)
	여성	186	3.74		4.44		3.10	
연령	20대 이하	24	3.86	2.172 (0.072)	4.41	0.449 (0.773)	3.34	1.500 (0.202)
	30대	48	3.72		4.42		3.00	
	40대	69	3.63		4.34		3.18	
	50대	105	3.65		4.36		2.95	
	60대 이상	62	3.99		4.52		4.45	
직업	1차 산업	27	3.90	2.670 (0.015)	4.36	0.603 (0.728)	3.48	4.508 (0.000)
	자영업	42	3.73		4.43		3.07	
	서비스/관광업	31	3.56		4.40		3.26	
	공무원/교사, 교수	29	3.99		4.46		3.50	
	전문직	71	3.86		4.47		3.33	
	학생	32	3.90		4.29		3.30	
	기타	76	3.48		4.35		2.71	

전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만족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에 따라서는 탐방인프라 및 홍보에 있어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만족도에서 직업별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가설 2의 검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객의 탐방형태 특성에 따라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탐방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차이분석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 방법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대한 항목별 차이분석 결과, <표 4-24>와 같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항목($F=6.737, p<0.001$),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항목($F=6.684, p<0.001$),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항목($F=5.338, p<0.00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항목($F=3.912, p<0.01$),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항목($F=6.188, p<0.001$),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항목($F=9.077, p<0.001$),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항목($F=4.866,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의 지질공원이나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나 단순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의 경우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은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탐방객의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4-25>와 같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항목($F=20.192, p<0.001$),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항목($F=10.503, p<0.001$),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항목($F=11.413, p<0.00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항목($F=10.115, p<0.001$),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표 4-24>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에 따른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 확률 (p값)
	신문/방송 (N=48)	인터넷/SNS (N=60)	홍보물 (N=33)	주변 사람 (N=111)	우연히 (N=56)		
탐방 참여	3.68	3.25	3.64	3.50	2.66	6.737	0.000
배움 기회	3.79	3.63	3.55	3.59	2.77	6.684	0.000
진정성	3.88	3.32	3.55	3.62	2.91	5.338	0.000
연구·학습	3.67	3.42	3.42	3.50	2.80	3.912	0.004
환경·생태	4.10	3.68	3.67	3.71	3.02	6.188	0.000
경관 감상	4.29	4.42	4.39	4.41	4.34	0.246	0.912
관광지	3.08	3.20	3.48	3.43	3.36	1.095	0.359
여행코스	3.29	3.25	3.45	3.46	3.55	0.636	0.637
우연히	2.17	2.17	2.94	2.62	3.41	9.077	0.000
권유	2.44	2.50	2.64	3.23	2.79	4.866	0.001
활력	3.77	3.68	3.61	3.78	3.70	0.200	0.938
여가	3.98	3.80	3.67	3.81	4.14	1.384	0.239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표 4-25>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 확률 (p값)
	처음 (N=147)	2회 (N=40)	3회 (N=29)	4회 이상 (N=92)		
탐방 참여	2.88	3.23	3.69	4.02	20.192	0.000
배움 기회	3.14	3.35	3.83	3.96	10.503	0.000
진정성	3.12	3.38	3.59	4.01	11.413	0.000
연구·학습	3.07	3.13	3.52	3.92	10.115	0.000
환경·생태	3.33	3.53	3.86	4.10	8.923	0.000
경관 감상	4.39	4.35	4.31	4.39	0.102	0.959
관광지	3.44	3.50	2.83	3.23	2.769	0.042
여행코스	3.55	3.50	3.17	3.22	1.928	0.125
우연히	2.82	2.80	2.38	2.36	2.802	0.040
권유	3.18	2.68	2.72	2.34	8.329	0.000
활력	3.70	3.88	3.48	3.78	0.732	0.533
여가	3.99	3.88	3.76	3.75	0.991	0.397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항목($F=8.923, p<0.001$),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목($F=2.769, p<0.05$),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항목($F=2.802, p<0.05$),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항목($F=8.329, p<0.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탐방객의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도 수월봉 지질공원 인지방법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제주의 지질공원이나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나 단순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의 경우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은 방법에 있어서 탐방객이 수월봉의 방문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탐방객의 수월봉 동반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결과, <표 4-26>과 같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항목($F=3.154,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방객의 탐방동기가 수월봉을 방문하는 동반형태와는 대부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여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탐방객의 동반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수월봉 방문 동행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혼자 (N=30)	가족/친지 (=106)	친구/동료 (N=149)	친목/기타 (N=23)		
탐방 참여	3.67	3.16	3.36	3.70	2.125	0.097
배움 기회	3.80	3.39	3.44	3.74	1.343	0.260
진정성	3.87	3.30	3.46	3.70	2.047	0.107
연구·학습	3.77	3.27	3.36	3.43	1.215	0.304
환경·생태	3.97	3.53	3.62	3.83	1.277	0.282
경관 감상	4.20	4.42	4.42	4.13	1.500	0.215
관광지	3.00	3.44	3.34	3.09	1.485	0.219
여행코스	3.20	3.47	3.47	3.00	1.416	0.238
우연히	2.40	2.69	2.68	2.48	0.504	0.680
권유	2.53	2.82	2.88	2.83	0.550	0.648
활력	3.40	3.71	3.87	3.35	2.343	0.073
여가	3.57	3.88	4.02	3.39	3.154	0.025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탐방객의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4-27>과 같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항목($F=8.783$, $p<0.001$),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항목($F=7.054$, $p<0.001$),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항목($F=10.513$, $p<0.00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항목($F=9.584$, $p<0.001$),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항목($F=8.510$, $p<0.001$),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항목($F=0.907$, $p<0.001$),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목($F=2.479$, $p<0.05$),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항목($F=2.597$, $p<0.05$),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항목($F=3.969$,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월봉 일대를 우연히 방문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는 형태의 뚜렷한 탐방동기 목적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동기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7>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승용차 (N=163)	렌터카 (N=94)	대중교통 (N=21)	관광버스 (N=14)	기타 (N=16)		
탐방 참여	3.59	2.83	4.05	2.86	3.38	8.783	0.000
배움 기회	3.68	3.06	4.19	2.93	3.38	7.054	0.000
진정성	3.72	2.97	4.19	2.64	3.50	10.513	0.000
연구·학습	3.61	2.89	4.24	2.57	3.38	9.584	0.000
환경·생태	3.87	3.19	4.33	3.00	3.50	8.510	0.000
경관 감상	4.52	4.27	4.67	4.00	3.50	0.907	0.000
관광지	3.32	3.39	3.33	3.29	3.00	0.396	0.811
여행코스	3.39	3.54	3.71	3.21	2.63	2.479	0.044
우연히	2.68	2.71	2.19	2.64	2.38	0.832	0.506
권유	2.84	2.98	2.52	2.79	2.13	1.683	0.154
활력	3.80	3.53	4.29	3.29	3.75	2.597	0.036
여가	3.89	3.93	4.33	3.86	2.94	3.969	0.004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대표명소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4-28>과 같이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항목($F=11.378$, $p<0.01$),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항목($F=10.177$,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월봉이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여부가 탐방동기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월봉이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알고 있는 집단은 제주의 지질공원이나 환경, 생태 등의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월봉이 대표명소로 모르는 집단은 단순한 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28> 수월봉 대표명소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 값)
	모른다(N=119)	알고 있다(N=189)		
탐방 참여	2.84	3.66	1.102	0.295
배움 기회	3.03	3.76	2.483	0.116
진정성	3.00	3.76	1.396	0.238
연구·학습	2.97	3.63	0.954	0.329
환경·생태	3.18	3.92	11.378	0.001
경관 감상	4.35	4.39	0.058	0.810
관광지	3.47	3.23	1.518	0.219
여행코스	3.55	3.32	0.031	0.859
우연히	2.98	2.42	1.044	0.308
권유	3.13	2.62	0.201	0.654
활력	3.70	3.75	0.271	0.603
여가	4.03	3.79	10.177	0.002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탐방객의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4-29>와 같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항목($F=34.943$, $p<0.001$),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항목($F=27.983$, $p<0.001$),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항목($F=25.472$, $p<0.00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항목($F=22.748$, $p<0.001$),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항목($F=27.262$,

$p<0.001$),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항목($F=3.206$, $p<0.05$),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항목($F=27.262$, $p<0.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 즉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알고 있는 집단에서는 제주의 지질공원이나 환경, 생태 등에 대한 지적욕구의 목적을 갖는 탐방동기가 뚜렷하게 높은 반면 모르는 집단에서는 탐방동기가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9>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른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모름 (N=136)	보통 (N=99)	알고 있음 (N=73)		
탐방 참여	2.87	3.35	4.22	34.943	0.000
배움 기회	3.02	3.56	4.22	27.983	0.000
진정성	3.04	3.49	4.21	25.472	0.000
연구·학습	2.98	3.35	4.14	22.748	0.000
환경·생태	3.20	3.70	4.37	27.262	0.000
경관 감상	4.32	4.32	4.55	2.260	0.106
관광지	3.41	3.27	3.23	0.706	0.495
여행코스	3.45	3.46	3.26	0.736	0.480
우연히	2.84	2.58	2.36	3.206	0.042
권유	3.14	2.79	2.27	10.542	0.000
활력	3.68	3.65	3.93	1.492	0.226
여가	3.96	3.83	3.79	0.708	0.493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에 따른 탐방동기의 집단 간의 차이를 요인분석에 의해 수렴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30>과 같다.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한 탐방동기를 갖는 집단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F=6.841$, $p<0.001$), 수월봉의 방문횟수($F=14.943$, $p<0.001$), 교통수단($F=11.160$, $p<0.001$), 대표명소 인지 여부($F=1.271$, $p<0.00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F=35.358$,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0>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분산분석

특성	항목	N	지적욕구		단순관광/탐방		경관감상/휴식·여가	
			평균	F(p)	평균	F(p)	평균	F(p)
프로그램 인지방법	신문, 방송	48	3.82	6.841 (0.000)	2.75	4.306 (0.002)	4.01	0.253 (0.908)
	인터넷, SNS	60	3.46		2.78		3.97	
	홍보물	33	3.57		3.13		3.89	
	주변사람들	111	3.58		3.19		4.00	
	우연히	56	2.83		3.28		4.06	
수월봉 방문횟수	처음	147	3.11	14.943 (0.000)	3.25	6.001 (0.001)	4.03	0.420 (0.739)
	2회	40	3.32		3.12		4.04	
	3회	29	3.70		2.78		3.85	
	4회 이상	92	4.00		2.79		3.97	
수월봉 동행형태	혼자	30	3.82	1.861 (0.136)	2.78	1.446 (0.229)	3.72	3.680 (0.012)
	가족, 친지	106	3.33		3.11		4.00	
	친구, 동료	149	3.45		3.09		4.10	
	친목, 기타	23	3.68		2.85		3.62	
수월봉 교통수단	승용차	163	3.69	11.160 (0.000)	3.06	1.692 (0.152)	4.07	4.979 (0.001)
	렌터카	94	2.99		3.16		3.91	
	대중교통(버스)	21	4.20		2.94		4.43	
	관광버스	14	2.80		2.98		3.72	
	기타	16	3.43		2.66		3.40	
대표명소 인지	모름	119	3.01	1.271 (0.000)	3.28	1.016 (0.000)	4.03	2.074 (0.600)
	알고 있음	189	3.75		2.90		3.98	
제주도 세계지질 공원 인지	모름	136	3.02	35.358 (0.000)	3.21	5.328 (0.005)	3.99	0.811 (0.445)
	보통	99	3.49		3.03		3.93	
	알고 있음	74	4.23		3.03		4.09	

탐방객이 지질공원의 단순한 관광이나 참여를 목적으로 탐방한 경우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F=4.306, $p<0.001$), 수월봉의 방문횟수(F=6.001, $p<0.001$), 대표명소 인지 여부(F=1.061, $p<0.00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F=5.328,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과 여가를 목적으로 탐방한 경우는 수월봉의 동행형태(F=3.680, $p<0.05$),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F=4.97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탐방객의 탐방동기에 따라 탐방형태적인 특성은 다양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월봉 방문시 동행형태를 제외하고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 방문횟수, 교통수단, 대표명소 지정여부 및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 방문횟수, 대표명소 지정여부 및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탐방하는 경우 동행형태나 교통수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따라 다소 다른 형태의 탐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1>과 같다.

그 결과, 탐방객의 탐방동기 중 지적욕구($t=6.447, p<0.001$) 및 경관감상/휴식·여가($t=6.760, p<0.001$)를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의 예측 설명력은 28.9%($R^2=0.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한 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1> 탐방동기가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276	0.367		14.357	0.000***
지적욕구	0.078	0.012	0.324	6.447	0.000***
단순관광/탐방	-0.006	0.019	-0.017	-0.331	0.741
경관감상/ 휴식·여가	0.197	0.029	0.362	6.760	0.000***

$R^2=0.289$ /수정된 $R^2=0.282, F=41.269$ ***

* $p<0.05$, ** $p<0.01$, *** $p<0.001$

본 분석 결과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1 = 5.276 + 0.078X_1(\text{지적욕구}) + 0.1197X_2(\text{경관감상/휴식} \cdot \text{여가})$$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의 지질공원이나 환경, 생태에 대한 학습 등의 지적욕구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한 수월봉일대 지질공원 트레일 탐방객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탐방형태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방법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32>와 같이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F=3.855, p<0.01$),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항목($F=2.432, p<0.05$),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항목($F=3.202, p<0.05$),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에 만족한다’ 항목($F=2.884, p<0.05$),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항목($F=3.330, p<0.05$),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항목($F=8.465, p<0.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월봉 지질공원 인지방법에 따라 지질공원이나 자연학습 등의 지적욕구 및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탐방객의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33>과 같이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F=7.303, p<0.001$),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항목($F=4.490, p<0.01$),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항목($F=4.548, p<0.01$),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항목($F=5.215, p<0.01$),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에 만족한다’ 항목($F=2.763, p<0.05$),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항목($F=4.011, p<0.01$),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항목($F=11.272, p<0.001$),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항목($F=7.377, p<0.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라 지질공원이나 자연학습 등의 지적욕구 및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월봉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지질공원에 대한 지적욕구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표 4-32>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방법에 따른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 확률 (p값)
	신문/방송 (N=48)	인터넷 /SNS (N=60)	홍보물 (N=33)	주변 사람 (N=111)	우연히 (N=56)		
해설안내	4.04	3.78	3.79	3.95	3.36	3.855	0.005
트레일 코스	4.06	3.98	4.12	4.23	3.84	1.966	0.100
안내판	3.65	3.55	3.79	3.86	3.41	2.432	0.048
다양성	3.63	3.63	3.55	3.78	3.20	3.202	0.013
홍보물	3.85	3.62	3.73	3.74	3.27	2.884	0.023
안내소	3.71	3.62	3.70	3.72	3.32	1.555	0.186
편리성	3.54	3.65	3.76	3.75	3.39	1.449	0.218
차별성	3.83	3.93	3.88	3.92	3.61	1.170	0.324
자연환경	4.56	4.38	4.33	4.44	4.36	0.729	0.573
분위기	4.27	4.22	4.24	4.35	4.21	0.390	0.816
자료습득	3.23	3.07	3.33	2.97	2.55	3.330	0.011
인터넷	3.63	3.62	3.39	3.10	2.61	8.465	0.000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 <표 4-9>에 제시되었음

<표 4-33> 수월봉 방문횟수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 확률 (p값)
	처음 (N=147)	2회 (N=40)	3회 (N=29)	4회 이상 (N=92)		
해설 안내	3.55	3.78	4.03	4.16	7.303	0.000
트레일 코스	3.94	3.90	4.14	4.35	4.490	0.004
안내판	3.53	3.55	3.62	3.99	4.548	0.004
다양성	3.40	3.53	3.66	3.92	5.215	0.002
홍보물	3.50	3.60	3.69	3.88	2.763	0.042
안내소	3.46	3.55	3.62	3.92	4.011	0.008
편리성	3.55	3.48	3.76	3.79	1.655	0.177
차별성	3.76	3.80	3.79	4.03	1.675	0.172
자연환경	4.37	4.28	4.38	4.58	2.155	0.093
분위기	4.27	4.05	4.24	4.39	1.592	0.191
자료습득	2.65	3.13	2.97	3.50	11.272	0.000
인터넷	2.95	3.30	3.21	3.64	7.377	0.000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 <표 4-9>에 제시되었음

탐방객의 수월봉 방문 동반 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분석에서는 <표 4-34>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의 만족정도는 동반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의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35>와 같이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F=4.996, p<0.001$),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항목($F=2.513, p<0.05$),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에 만족한다’ 항목($F=3.329, p<0.05$),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항목($F=3.819, p<0.01$),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항목($F=2.885, 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부 지질공원 해설과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해 탐방객의 방문 교통수단에 따라 다소 다른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홍보에 대해서도 탐방객의 방문 교통수단에 따라 만족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수월봉 방문 동행형태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혼자 (N=30)	가족/친지 (N=106)	친구/동료 (N=149)	친목/기타 (N=23)		
해설안내	3.97	3.70	3.85	3.83	0.702	0.552
트레일 코스	4.03	3.93	4.17	4.13	1.481	0.220
안내관	3.47	3.52	3.81	3.83	2.501	0.060
다양성	3.47	3.49	3.70	3.61	1.028	0.381
홍보물	3.70	3.55	3.73	3.48	0.949	0.417
안내소	3.57	3.52	3.75	3.35	1.691	0.169
편리성	3.53	3.57	3.74	3.39	1.291	0.278
차별성	3.83	3.69	3.99	3.70	2.239	0.084
자연환경	4.43	4.35	4.49	4.30	0.975	0.405
분위기	3.97	4.22	4.39	4.22	2.544	0.056
자료습득	3.23	2.88	3.02	3.04	0.807	0.491
인터넷	3.43	3.14	3.25	3.17	0.545	0.652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 <표 4-9>에 제시되었음

<표 4-35> 수월봉 방문 교통수단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 확률 (<i>p</i> 값)
	승용차 (N=163)	렌터카 (N=94)	대중교통 (N=21)	관광버스 (N=14)	기타 (N=16)		
해설안내	4.01	3.48	4.10	3.50	3.56	4.996	0.001
트레일 코스	4.20	3.87	4.19	4.14	3.81	2.339	0.055
안내판	3.77	3.51	3.76	3.57	3.69	1.134	0.341
다양성	3.71	3.37	3.95	3.43	3.44	2.513	0.042
홍보물	3.78	3.38	3.86	3.29	3.88	3.329	0.011
안내소	3.72	3.39	3.86	3.50	3.75	1.923	0.106
편리성	3.70	3.49	3.76	3.57	3.69	0.794	0.530
차별성	3.88	3.74	4.14	3.79	3.81	0.827	0.509
자연환경	4.50	4.31	4.48	4.43	4.25	1.241	0.294
분위기	4.33	4.22	4.48	4.36	3.75	2.195	0.069
자료습득	3.21	2.63	2.95	3.00	3.00	3.819	0.005
인터넷	3.39	2.94	3.38	2.86	3.31	2.885	0.023

*항목내용은 <표 4-7>, <표 4-9>에 제시되었음

탐방객의 수월봉 지질공원 대표명소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36>과 같이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월봉이 대표명소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가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홍보에 있어서는 대표명소 지정을 모르는 탐방객 집단이 알고 있는 집단보다 만족 정도가 다소 낮은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탐방객의 유네스코 제주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37>과 같이 ‘탐방분위기에 만족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F=14.113, p<0.001$),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항목($F=8.077, p<0.001$),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항목($F=8.901, p<0.001$),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항목($F=9.809, p<0.001$),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에 만족한다’ 항목($F=12.656, p<0.001$),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항목($F=14.155, p<0.001$), ‘방문시설의 이용편리성에 대해 만

<표 4-36> 수월봉 대표명소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모른다(N=119)	알고 있다(N=189)		
해설안내	3.50	4.00	1.779	0.183
트레일 코스	3.97	4.14	0.063	0.802
안내판	3.51	3.78	0.226	0.635
다양성	3.42	3.71	0.128	0.721
홍보물	3.46	3.76	2.821	0.094
안내소	3.36	3.79	0.752	0.387
편리성	3.45	3.75	0.511	0.475
차별성	3.64	3.98	3.488	0.063
자연환경	4.35	4.47	0.203	0.652
분위기	4.24	4.30	0.312	0.577
자료습득	2.49	3.31	0.642	0.424
인터넷	2.66	3.58	3.480	0.063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 <표 4-9>와 <표 4-10>에 제시되었음

<표 4-37>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모름 (N=136)	보통 (N=99)	알고 있음 (N=73)		
해설안내	3.54	3.81	4.32	14.113	0.000
트레일 코스	3.90	4.05	4.42	8.077	0.000
안내판	3.50	3.63	4.08	8.901	0.000
다양성	3.39	3.57	4.03	9.809	0.000
홍보물	3.40	3.64	4.11	12.656	0.000
안내소	3.37	3.60	4.14	14.155	0.000
편리성	3.41	3.63	4.05	10.705	0.000
차별성	3.66	3.80	4.26	10.018	0.000
자연환경	4.32	4.37	4.68	6.550	0.002
분위기	4.20	4.25	4.45	2.271	0.105
자료습득	2.54	3.06	3.74	29.752	0.000
인터넷	2.76	3.34	3.93	30.309	0.000

*항목내용은 <표 4-7>, <표 4-9>에 제시되었음

족한다' 항목($F=10.705$, $p<0.001$),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 항목($F=10.018$, $p<0.001$),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항목($F=29.752$, $p<0.001$),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항목($F=30.309$, $p<0.001$)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라 운영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한 평가가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도의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운영 평가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지질공원을 인지하는 탐방객 집단에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형태에 따른 운영 인식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요인분석에 의해 수렴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38>과 같다. 탐방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방법($F=2.887$, $p<0.05$), 수월봉 방문 횟수($F=5.323$, $p<0.01$), 수월봉 방문에 따른 교통수단($F=2.706$, $p<0.05$), 수월봉의 대표명소 인지 여부($F=0.051$, $p<0.0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F=16.479$, $p<0.001$)에서 탐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수월봉 프로그램 인지방법($F=6.133$, $p<0.001$), 방문 횟수($F=10.904$, $p<0.001$), 수월봉 방문에 따른 교통수단($F=3.732$, $p<0.01$), 수월봉의 대표명소 인지 여부($F=0.630$, $p<0.00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F=36.282$, $p<0.001$)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의 탐방환경에 대해서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F=16.479$, $p<0.001$)에서만 탐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월봉 일대의 탐방환경에 대해서는 탐방형태의 특성에 관계없이 만족정도가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탐방인프라 및 홍보에 대해서는 탐방형태에 따라 다소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월봉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의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9>과 같다.

<표 4-38> 탐방형태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운영에 대한 분산분석

특성	항목	N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홍보	
			평균	F(p)	평균	F(p)	평균	F(p)
프로그램 인지방법	신문, 방송	48	3.79	2.887 (0.023)	4.49	0.446 (0.775)	3.43	6.133 (0.000)
	인터넷, SNS	60	3.68		4.38		3.35	
	홍보물	33	3.79		4.38		3.36	
	주변사람들	111	3.87		4.43		3.04	
	우연히	56	3.43		4.30		2.58	
수월봉 방문횟수	처음	147	3.57	5.323 (0.001)	4.38	2.015 (0.112)	2.80	10.941 (0.000)
	1회	40	3.65		4.26		3.22	
	2회	29	3.79		4.34		3.09	
	3회 이상	92	4.01		4.53		3.07	
수월봉 동행형태	혼자	30	3.70	1.621 (0.185)	4.24	1.585 (0.193)	3.33	0.767 (0.513)
	가족, 친지	106	3.62		4.36		3.01	
	친구, 동료	149	3.84		4.47		3.14	
	친목, 기타	23	3.67		4.40		3.11	
수월봉 교통수단	승용차	163	3.85	2.706 (0.031)	4.46	1.693 (0.151)	3.30	3.732 (0.006)
	렌터카	94	3.53		4.33		2.79	
	대중교통(버스)	21	3.95		4.58		3.17	
	관광버스	14	3.60		4.38		2.93	
	기타	16	3.70		4.02		3.16	
대표명소 인지	모름	119	3.54	0.051 (0.001)	4.35	0.021 (0.297)	2.83	0.630 (0.000)
	알고 있음	189	3.86		4.44		3.45	
세계지질 공원 인지	모름	136	3.52	16.479 (0.000)	4.32	4.579 (0.011)	2.65	36.282 (0.000)
	보통	99	3.72		4.36		3.20	
	알고 있음	74	4.18		4.62		3.84	

그 결과, 탐방객의 프로그램 운영 중 탐방동기 중 탐방인프라($t=2.139, p<0.05$), 탐방환경($t=10.147, p<0.001$) 및 홍보($t=2.165, p<0.05$)를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의 예측 설명력은 45.4%($R^2=0.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방프로그램의 변인 중 탐방환경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수월봉을 추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1 = 5.624 + 0.025X_1(\text{탐방인프라}) + 0.497X_2(\text{탐방환경}) + 0.063X_3(\text{홍보})$$

<표 4-39> 프로그램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446	0.349		9.888	0.000***
탐방인프라	0.025	0.012	0.125	2.139	0.033*
탐방환경	0.497	0.049	0.550	10.147	0.000***
홍보	0.063	0.029	0.102	2.165	0.031*

$R^2=0.454$ /수정된 $R^2=0.449$, $F=84.256^{***}$

* $p<0.05$, ** $p<0.01$, *** $p<0.001$

이와 같이 수월봉의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 인식과 관련해서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홍보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재방문 및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탐방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이 탐방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제주도민 및 관광객에 따라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한 차이분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 <표 4-40>과 같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중 탐방동기가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항목($t=7.518$, $p<0.001$),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항목($t=6.210$, $p<0.001$),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항목($t=76.860$, $p<0.001$),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항목($t=4.889$, $p<0.001$),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항목($t=5.327$, $p<0.001$),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목($t=-2.711$, $p<0.01$), ‘여행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목($t=7.518$, $p<0.05$),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항목($t=-2.383$, $p<0.05$),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항목($t=-3.224$, $p<0.0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항목($t=2.530$, $p<0.05$)에서 유의성을 보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4-40>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한 차이분석

항목#	평균		t	유의확률 (p값)
	제주도민(N=149)	관광객(N=159)		
탐방 참여	3.85	2.87	7.518	0.000
배움 기회	3.89	3.09	6.210	0.000
진정성	3.92	3.04	6.860	0.000
연구·학습	3.72	3.04	4.889	0.000
환경·생태	3.99	3.30	5.327	0.000
경관 감상	4.40	4.36	0.415	0.679
관광지	3.14	3.50	-2.711	0.007
여행코스	3.24	3.57	-2.383	0.018
우연히	2.42	2.85	-2.831	0.005
권유	2.57	3.06	-3.224	0.001
활력.	3.90	3.57	2.530	0.012
여가	3.81	3.94	-1.040	0.299

* $p<0.05$, ** $p<0.01$, *** $p<0.001$,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수월봉 일대를 탐방하게 된 동기가 많은 차이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즉, 제주도민의 탐방동기인 경우 ‘지질공원에 대

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등 지질공원에 대한 탐방체험, 학습과 같은 지적욕구가 높은 반면 관광객인 경우는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와 같이 특정 목적에 의한 탐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행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및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탐방하게 되었다는 탐방동기에서도 유의성을 보여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탐방동기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 탐방하게 되었다는 항목에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탐방객의 현재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표 4-41>과 같이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월봉 일대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 동기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거주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1> 거주기간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1년 이하 (N=27)	2-5년 (N=54)	5-10년 (N=34)	10년 이상 (N=193)		
탐방 참여	3.19	3.44	3.38	3.33	0.285	0.836
배움 기회	3.37	3.67	3.38	3.46	0.605	0.612
진정성	3.33	3.48	3.53	3.47	0.141	0.935
연구·학습	3.11	3.50	3.35	3.38	0.568	0.637
환경·생태	3.48	3.83	3.62	3.61	0.690	0.559
경관 감상	4.41	4.30	4.29	4.41	0.430	0.732
관광지	3.04	3.13	3.56	3.38	1.662	0.175
여행코스	3.33	3.28	3.56	3.43	0.443	0.723
우연히	2.22	2.78	2.97	2.60	1.779	0.151
권유	2.67	3.20	3.00	2.70	2.295	0.078
활력	3.93	3.67	3.91	3.68	0.681	0.564
여가	3.89	3.74	3.85	3.92	0.383	0.765

* $p < 0.05$, ** $p < 0.01$, *** $p < 0.001$,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었음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해 제주도내외 탐방객 간의 차이를 요인분석 결과에서 수렴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표 4-42>와 같다. 지질공원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인 경우는 거주지($F=1.844$,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질공원의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거주지($F=0.347$,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경관감상 및 휴식과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인 경우는 거주지나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주도민인 경우는 지적욕구 목적의 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탐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관광객은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한 탐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한 탐방동기를 갖는 경우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제주도내외 탐방객에 따른 지질공원 탐방동기 분산분석

특성	항목	N	지적욕구		단순관광/탐방		경관감상/휴식·여가	
			평균	F(p)	평균	F(p)	평균	F(p)
거주지	제주도내	149	3.73	1.844	2.84	0.347	4.04	0.002
	제주도외	159	3.07	(0.024)	3.25	(0.000)	3.96	(0.389)
거주기간	1년 이하	27	3.30	0.441 (0.724)	2.82	1.329 (0.265)	4.08	0.344 (0.793)
	2~5년	54	3.58		3.10		3.90	
	5~10년	34	3.45		3.27		4.02	
	10년 이상	193	3.45		3.03		4.00	

한편, 수월봉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3>과 같다.

그 결과, 제주도민의 탐방동기 중 지적욕구($t=9.375$, $p<0.001$)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t=5.510$, $p<0.001$)를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의 예측 설명력은 55.9%($R^2=0.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객의 탐방동기 중 지적욕구($t=2.347$, $p<0.05$)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

가($t=3.982$, $p<0.001$)를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의 예측 설명력은 14.0%($R^2=0.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제주도민: } Y_1 = 0.173X_1(\text{지적욕구})+0.205X_2(\text{경관감상 및 휴식} \cdot \text{여가})$$

$$\text{관광객: } Y_1 = 0.038X_1(\text{지적욕구})+0.161X_2(\text{경관감상 및 휴식} \cdot \text{여가})$$

이와 같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경우 탐방동기가 지적욕구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 목적인 경우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수월봉을 추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수준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구분 없이 지적욕구 목적이거나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방문한 탐방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한다.

<표 4-43>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상수	표준오차	베타		
제주도민	상수	3.199	0.470		6.806	0.000***
	지적욕구	0.173	0.018	0.556	9.375	0.000***
	단순관광/ 탐방	-0.010	0.023	-0.026	-0.448	0.655
	경관감상/ 휴식·여가	0.205	0.037	0.343	5.510	0.000***
	$R^2=0.559/\text{수정된 } R^2=0.550, F=61.256^{***}$					
관광객	상수	6.784	0.507		13.369	0.000***
	지적욕구	0.038	0.016	0.177	2.347	0.020*
	단순관광/ 탐방	-0.029	0.028	-0.086	-1.054	0.294
	경관감상/ 휴식·여가	0.161	0.041	0.330	3.982	0.000***
	$R^2=0.140/\text{수정된 } R^2=0.123, F=8.405^{***}$					

* $p<0.05$, ** $p<0.01$, *** $p<0.001$

(2)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차이분석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44>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항목($t=5.259, p<0.001$),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팸플릿 등)에 만족한다’ 항목($t=3.562, p<0.001$),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항목($t=4.307, p<0.001$),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항목($t=4.775, p<0.001$)에서는 유의성이 인정되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항목($t=2.368, p<0.05$),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항목($t=2.928, p<0.01$),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항목($t=3.355, p<0.01$), ‘방문시설의 이용편리성에 대해 만족한다’ 항목($t=2.168, p<0.05$),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 항목($t=2.366, p<0.05$)에서도 유의성이 인정되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해설, 인프라 및 이용편리성 등에서는 제주도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관광객의 만족정도는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되었다.

<표 4-44>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차이분석

항목#	평균		t	유의확률 (p값)
	제주도민 (N=149)	관광객 (N=159)		
해설 안내	4.12	3.52	5.259	0.000
트레일 코스	4.20	3.96	2.368	0.018
안내관	3.79	3.57	1.960	0.051
다양성	3.77	3.43	2.928	0.004
홍보물	3.85	3.45	3.562	0.000
안내소	3.83	3.43	3.355	0.001
편리성	3.76	3.52	2.168	0.031
차별성	3.98	3.72	2.366	0.019
자연환경	4.50	4.35	1.733	0.084
분위기	4.35	4.21	1.490	0.137
자료습득	3.28	2.72	4.307	0.000
인터넷	3.54	2.93	4.775	0.000

* $p<0.05$, ** $p<0.01$, *** $p<0.001$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 <표 4-9>에 제시되었음

이에 반해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자연환경에 만족한다’,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 항목에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탐방객의 거주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에서는 <표 4-45>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거주기간이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에는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5> 거주기간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차이분석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p값)
	1년 이하 (N=27)	2-5년 (N=54)	5-10년 (N=34)	10년 이상 (N=193)		
해설 안내	3.85	3.80	3.97	3.78	0.342	0.795
트레일 코스	3.96	4.06	4.12	4.09	0.179	0.910
안내판	3.41	3.67	3.74	3.71	0.782	0.505
다양성	3.30	3.61	3.74	3.61	0.998	0.394
홍보물	3.44	3.61	3.79	3.66	0.640	0.590
안내소	3.26	3.59	3.76	3.66	1.404	0.242
편리성	3.59	3.61	3.65	3.64	0.032	0.992
차별성	3.93	3.83	3.76	3.85	0.151	0.929
자연환경	4.41	4.41	4.29	4.45	0.452	0.716
분위기	4.22	4.20	4.21	4.32	0.399	0.754
자료습득	3.11	3.06	3.35	2.90	1.666	0.174
인터넷	3.26	3.26	3.41	3.18	0.435	0.728
재방문	4.41	4.48	4.53	4.47	0.175	0.913
추천	4.56	4.35	4.32	4.47	0.890	0.447

*항목의 전체내용은 <표 4-7>, <표 4-9>와 <표 4-10>에 제시되었음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인식에 따른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차이를 요인분석에 의해 수렴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46>과 같다. 탐방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는 거주지(F=8.937, $p<0.00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의 탐방환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거주지($F=0.375,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거주지에 따라 제주도민은 탐방인프라 및 홍보에서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탐방환경에 대해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4-46> 제주도내외 탐방객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산분석

특성	항목	N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홍보	
			평균	F(p)	평균	F(p)	평균	F(p)
거주지	제주도내	149	3.91	8.937 (0.000)	4.44	0.000 (0.087)	3.37	0.375 (0.000)
	제주도외	159	3.58		4.37		2.83	
거주기간	1년 이하	27	3.59	0.398 (0.754)	4.40	0.431 (0.731)	3.19	1.114 (0.344)
	2~5년	54	3.72		4.36		3.16	
	5~10년	34	3.82		4.34		3.38	
	10년 이상	193	3.75		4.43		3.04	

한편, 수월봉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의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7>과 같다.

제주도민인 경우 탐방환경($t=7.240, p<0.001$) 및 홍보($t=2.089, p<0.05$)를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의 예측 설명력은 56.3%($R^2=0.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광객은 탐방환경($t=7.004, p<0.001$)을 목적으로 한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의 예측 설명력은 35.7%($R^2=0.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제주도민: } Y_1 = 0.559X_1(\text{탐방환경}) + 0.092X_2(\text{홍보})$$

$$\text{관광객: } Y_1 = 0.434X_1(\text{탐방환경})$$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대부분은 탐방환경이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수월봉을 추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제주도민의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즉, 수월봉 일대 탐방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제주도민은 홍보가 강화되면 재방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탐방 추천이 높아진다는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7>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값)
		상수	표준오차	베타		
제주도민	상수	2.306	0.496		4.649	0.000***
	탐방인프라	0.033	0.017	0.158	1.893	0.060
	탐방환경	0.559	0.077	0.566	7.240	0.000***
	홍보	0.092	0.044	0.131	2.089	0.038*
	R ² =0.563/수정된 R ² =0.554, F=62.366***					
관광객	상수	4.412	0.498		8.865	0.000***
	탐방인프라	0.016	0.016	0.078	0.985	0.326
	탐방환경	0.434	0.062	0.527	7.004	0.000***
	홍보	0.059	0.039	0.104	1.518	0.131
	R ² =0.357/수정된 R ² =0.344, F=28.641***					

* $p < 0.05$, ** $p < 0.01$, *** $p < 0.001$

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제주도 지질공원 내 대표명소인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48>과 같다.

첫째,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수월봉 탐방형태, 탐방동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탐방형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에 따라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고 성별, 거주지, 거주기간 및 직업에 따라 방문횟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동행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에 따라 교통수단에 차이를 가져왔다. 거주지와 직업에 따라 수월봉의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정여부에 대한 인지 여부와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탐방동기는 제주도 지질공원이나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질공원의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고,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탐방인프라와 홍보에서는 직업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었으나 탐방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탐방객의 탐방형태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동기에 대해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한 탐방객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 수월봉의 방문횟수, 교통수단, 대표명소 인지 여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질공원의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 방문횟수, 대표명소 인지 여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휴식과 여가를 목적으로 탐방한 경우는 수월봉의 동행형태, 방문 교통수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적욕구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의한 경향을 보였으나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탐방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방법, 수월봉 방문 횟수, 수월봉 방문에 따른 교통수단, 수월봉의 대표명소 인지 여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탐방환경에 대해서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수월봉 프로그램 인지방법, 방문 횟수, 수월봉 방문에 따른 교통수단, 수월봉의 대표명소 인지 여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은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및 홍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탐방환경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재방문 및 방문 추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탐방동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는 지질공원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탐방한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지질공원의 단순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탐방한 경우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휴식과 여가를 목적으로 탐방한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구분 없이 탐방동기 중 지적욕구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가 목적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차이는 탐방인프라 및 홍보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탐방환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탐방환경이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수월봉을 추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민은 홍보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분석결과의 요약

가설 및 채택여부	가설 및 채택내용
가설 1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 탐방동기 및 운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탐방형태
부분채택	프로그램 인지(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횟수(성별, 거주지, 거주기간, 직업), 동행형태(연령), 교통수단(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대표명소 인지(거주지, 직업), 세계지질공원 인지(거주지, 직업)
1-2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탐방동기
부분채택	지적욕구(직업), 단순 관광·탐방(연령)
기 각	경관감상 및 휴식·여가
1-3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인식
부분채택	탐방인프라(직업), 홍보(직업)
기 각	탐방환경(성별, 연령, 직업)
가설 2	탐방객의 탐방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및 운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탐방 형태적 특성에 따른 탐방동기
부분채택	지적욕구(프로그램 인지방법, 방문횟수, 교통수단, 대표명소 인지, 세계지질공원 인지), 단순 관광·탐방(프로그램 인지방법, 방문횟수, 대표명소 인지, 세계지질공원 인지), 경관감상 및 휴식·여가(동행형태, 교통수단)
2-2	탐방 형태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인식
부분채택	탐방인프라(프로그램 인지방법, 방문횟수, 교통수단, 대표명소 인지, 세계지질공원 인지), 탐방환경(세계지질공원 인지), 홍보(프로그램 인지방법, 방문횟수, 교통수단, 대표명소 인지, 세계지질공원 인지)
가설 3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탐방동기
채 택	거주지(지적욕구, 단순관광/탐방)
기 각	거주지(경관감상/휴식·여가), 거주기간
3-2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프로그램 운영 인식
채 택	거주지(탐방인프라, 홍보)
기 각	거주지(탐방환경), 거주기간

2) 분석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위에 요약한 분석결과 및 해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에는 40~50대의 탐방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탐방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탐방형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연령,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 수월봉의 방문 횟수, 교통수단 및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이나 대표명소의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탐방동기에 따라 탐방 형태적 특성은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월봉 지질공원 탐방동기에 따라 다소 다른 형태의 탐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등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수월봉 일대를 탐방하는 경우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방법, 방문횟수, 교통수단, 대표명소 지정여부 및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지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거나 여행코스인 한 부분 등 단순관광을 목적으로 탐방하는 경우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지도가 높고 방문횟수가 많거나 대표명소 지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지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월봉을 탐방하는 반면 단순관광을 위한 탐방객들은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됐거나 수월봉을 처음 방문하고 대표명소나 세계지질공원 인지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위해 탐방하는 경우 동행형태나 교통수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수월봉 지질공원 탐방이 단순관광보다 지적욕구나 경관감상 또는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할 때 만족도가 높아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월봉 탐방동기 중 자연은 느끼고, 감상하고, 체험하는 미적추구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가능한 자연환경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적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탐방객들은 자연환경과 탐방분위기 등 수월봉의 탐방환경에는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탐방인프라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 평가하였다. 반면 홍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특히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탐방환경은 재방문과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수월봉 탐방동기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등 지질공원에 대한 탐방체험, 학습과 같은 지적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관광객들은 단순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이 많았다. 다만 탐방동기가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대부분은 탐방환경이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수월봉을 추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해설, 인프라 및 이용편리성 등에서는 제주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홍보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가 강화되면 재방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탐방 추천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 전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지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지질공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주도 지질공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지역 내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일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코스는 수성화산 및 분석구로 이루어진 해안절벽의 지질학적 바탕 위에 다양한 역사, 문화, 생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는 현재까지 3개 마을의 주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탐방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변모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질공원 트레일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대표 사례로 알려진 수월봉 일대를 중심으로 탐방객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질공원 트레일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해 보다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제8회 수월봉 트레일 행사’가 개최되었던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 동안 탐방동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응답자의 특성 및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 지질공원 내 대표명소인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대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형태,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탐방형태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제주도내외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미미하였다. 탐방동기는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질공원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지질공원의 단순한 관광이나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탐방환경을 제외한 탐방인프라 및 홍보에 있어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탐방객의 탐방형태 특성에 따른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형태는 탐방동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욕구를 목적으로 한 탐방동기를 갖는 집단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 등 다양한 탐방형태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탐방형태에서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은 지적욕구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 목적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단순관광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형태에 따른 운영 인식과 관련하여 탐방환경을 제외한 탐방인프라,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다양한 탐방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운영 인식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그램 운영 중 탐방인프라, 탐방환경 및 홍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탐방환경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에 지질공원 프로그램 탐방동기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거주기간은 차이가 없었다.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동기에 따른 재방문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구분 없이 탐방동기 중 지적욕구

및 경관감상이나 휴식·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식은 탐방인프라 및 홍보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월봉의 탐방인프라와 탐방환경에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홍보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특히, 탐방환경은 재방문과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 추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수월봉 탐방동기 중에는 자연은 느끼고, 감상하고, 체험하는 미적추구 동기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가능한 자연환경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홍보에 대한 인식차이는 수월봉이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로서 인지도의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민은 수월봉의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관광객은 이들 수월봉이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현재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지질공원 트레일 4곳 중 비교적 활성화된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에 한해 실시되어 제주도 전체 지질공원 트레일 탐방객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다. 특히,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을 제외한 ‘산방산·용머리 지질트레일’,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성산오조 지질트레일’ 등은 비교적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낮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지질공원 트레일 탐방객의 설문조사지역 및 대상, 내용범위를

확대하고, 트레일 코스별로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지질공원 트레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영·허석·양승용(2011). 관광동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시장세분화-거문오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4), 한국관광학회, pp.11-30.
- 고정균·김완병·박찬식·최광식·전용문(2018). 『제주도 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위원회. pp.14-37.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아래, pp.145-224.
- 김남조(2001).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지각, 태도, 기대행위 차이, 『관광학연구』, 25(3), pp.43-26.
- 김범훈(2016).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도서출판 신우, pp.367.
- 김용춘·고길림(2013).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pp.5-84.
- 김종일(2012). 관광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 지오투어리즘, 전남발전연구원, p.6.
- 김태영·임종덕(2016). 국가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질학회지』, 52(5), pp.609-622.
- 문창규·유완상·이수재(2016). 한국형 국가지질공원 제도, 『지질학회지』, 52(5), pp.575-586.
- 박석희(2000). 『관광조사연구기법』, 서울: 일신각, p.119.
- 서의훈(2000). 『SPSS 7.5 한글판을 이용한 SPSS 통계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자유아카데미, pp.110-112.
- 신동찬(2017). 세계자연유산 관광정책 영향인식이 공정성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여도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 21(6), pp.405-427.
- 오민재·허석·양승용(2009). 세계자연유산지구 관광객의 동기와 특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2), 한국관광학회,

- pp.303-326.
- 유완상·문창규(2016). 국가지질공원의 인지도 조사 및 분석, 『지질학회지』, 52(5), pp.561-574.
- 유원희·서세진·최병길(2017). 제주도 UNESCO 및 UNFAO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비교 -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pp.134-143.
- 이수진(2012).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가관광연구』, 20, pp.69-89.
- 이수진(2013). 지질관광동기와 서비스품질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6p.
- 이수재·사공희·최준규·문유리·이명진·김은영·최돈원·이광춘·조홍섭(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9-16.
- 이성준·조형성·강가령·손문(2016). 지질유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질학회지』, 52(5), pp.539-560.
- 임근욱·진현식·이혁진(201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사진지리학회』, 24(2): 53-66.
- 임근욱(2015). 제주도 지질공원 방문객의 관광태도가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7(7): 25-43.
- 전용문(2016). 지질공원의 목적과 의미, 『지질학회지』, 52(5), pp.525-526.
- 전용문·고정균(2017).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질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36p.
- 전용문·고정균·기진석·이수재(2016).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트레일 활성화 사례 연구, 『지질학회지』, 52(5): 527-538.
- 전용문·기진석·고윤정·고정균(2015).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탐방로 활성화 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45p.
- 정충영·최이규(2009). 『SP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p.171.
- 조문수·박시사·노경국·오상운(2008).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제주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학연구』, 32(3), pp.167-186.

- 주성옥 · 우경식(2016). 국내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방향, 『지질학회지』, 52(5), pp.587-608.
- 제주관광공사(2016).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 『지오브랜드 백서』, pp.36-43.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17). 『3차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계획 (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78p.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 한라산연구원, 439p.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2016).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pp.109-131.
- Azman, N. · Halim, S.A. · Puay, O. · Kommo, I.(2011). "The Langkawi Global Geopark: local community's perspectives on publ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7(3), pp.261-279.
- Dowling, R.K. · Newsome, D.(2006). "The scope and nature of geotourism", In Dowling, R.E.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7.
- Jones, C.(2008). History of geoparks. In: Burel, C.V. and Prosser, C.D.(eds), Special Publications of Geological Society, 300, 273-277.
- Sohn, Y.K. · Chough, S.K.(1989). Depositional processes of the Suwolbong tuff ring, Cheju Island(Korea), 『Sedimentology』, 36, 837-855.
- Sohn, Y.K. · Park, K.H.(2005). Composite tuff ring/cone complexes in Jeju Island, Korea: possible consequences of substrate collapse and vent migration.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141, 157-175.
- UNESCO(2014).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GGN)』, January 2014, 13p.
- UNESCO(2016).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global-geoparks/unesco-global-geoparks/> (August, 2016)

Woo, K.S. · Sohn, S.K. · Yoon, S.H. · Ahn, U.S. · Spate, A.(2013). 『Jeju Island Geopark - A Volcanic Wonder of Korea』 , Springer Verlag, Berlin, p.88.

<http://www.globalgeopark.org>

<http://geopark.jeju.go.kr>

<http://www.koreageoparks.kr>

【 설 문 지 】

번호

알림 본 연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어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한 연구의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학술적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이용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느낌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문항을 잘 읽고 끝까지 응답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일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 문 수 교수

연구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강 시 영

연락처: 010-8633-3874, e-mail: sykang@ihalla.com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세 이상
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① 고산.용수리 지역 ② 고산.용수리 지역 외 제주지역 (지역명:)
③ 제주 외 지역 (도외 관광객)
4. 귀하의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① 1년 이하 ② 2~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5. 귀하의 직업은(다중응답 가능)?
① 농업 ② 어업 ③ 축산업 ④ 자영업 ⑤ 판매, 서비스업 ⑥ 공무원
⑦ 교사.교수 ⑧ 전문직 ⑨ 학생 ⑩ 관광업 ⑪ 기타()

6. 귀하는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신문.방송 ② 인터넷.SNS ③ 홍보물 ④ 주변 사람들 ⑤ 우연히
7. 귀하는 이번 수월봉 방문이 몇 번째입니까?
 ① 처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8. 귀하는 수월봉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친지와 함께 ③ 친구.동료와 함께 ④ 친목 및 기타단체
9. 귀하가 수월봉에 오실 때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 ② 렌타카 ③ 대중교통(버스) ④ 관광버스 ⑤ 기타
10. 귀하는 수월봉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11. 귀하는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12. 귀하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후 개발된 트레일 등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오늘 처음이다.

II.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수월봉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의견에 표시(○)해 주십시오. -

설 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탐방하기 위해	5	4	3	2	1
2. 지질공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5	4	3	2	1
3. 지질관광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	5	4	3	2	1
4. 제주의 자연을 연구.학습하기 위해	5	4	3	2	1
5. 제주 환경.생태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5	4	3	2	1

설 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5	4	3	2	1
7. 단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5	4	3	2	1
8. 여행코스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5	4	3	2	1
9.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5	4	3	2	1
10.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5	4	3	2	1
1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5	4	3	2	1
12. 여가를 즐기기 위해	5	4	3	2	1

Ⅲ.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트레일 탐방 및 지질공원해설사 활동 등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질공원해설사의 해설 및 안내에 만족한다	5	4	3	2	1
2.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만족한다	5	4	3	2	1
3. 지질공원 해설안내판에 만족한다	5	4	3	2	1
4.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한다	5	4	3	2	1
5. 각종 해설, 안내, 홍보물(팸플릿 등)에 만족한다	5	4	3	2	1
6.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5	4	3	2	1
7. 방문시설의 이용편리성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8. 다른 관광지에서 관광경험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	5	4	3	2	1
9. 자연환경에 만족한다	5	4	3	2	1
10. 탐방 분위기에 만족한다	5	4	3	2	1

IV.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홍보에 따른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5	4	3	2	1
2.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5	4	3	2	1

V.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탐방 및 방문의향에 따른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하겠다	5	4	3	2	1
2. 주변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	5	4	3	2	1

VI.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f Visitor's Characteristics to UNESCO Global Geopark Geotrail: Focused on Suwolbong in Jeju Island

Kang, Si-Young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sitor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asks of the operation, and to propose more advanced activation measures of Suwolbong area, which is know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Jeju Island Geopark trail programs.

From April 5th to 8th, 2018,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vis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8th Jeju Island Global Geopark Suwolbong Trai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visit types, visit motivation, and perception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visitors.

The types of visit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distinction, age, occupation, residence in and out of Jeju Island, while length of residence showed not difference. The visit motivation varied in intellectual needs of Geopark and Jeju Island nature, and the simple sightseeing or participation except for the landscape appreciation, relaxation or leisure. For the Geopark program oper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shown in the visiting infrastructure and public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visiting environment.

Seco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visit motivation and the perception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visit types of visitors..

The visit types of the Geopark trail program showed varied depending on the visit motivation. In particular, visitors who have motivation to visit intellectual needs showed differences in various types of visit such as recognition of Geopark trail program,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 of visit for landscape appreciation, relaxation and leisure.

However, motivation for intellectual needs, landscape appreciation, and leisur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visit and visit referrals to other people, but that for the simple sightseeing had little impact.

The way of Geopark trail program operation according to types of vis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isiting infrastructure and publicity of the Geopark. However, the influence on revisit and visit referrals based on the Geopark trail program evalu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infrastructure,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the program. Especially, it was recognized that the environmen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sit motivation and perception of operation between Jeju Island residents and tourists, showing no difference in the length of residence.

The difference of visit motivation between Jeju Island residents and tourists to the Geopark trail progra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purpose of the visit was aimed at intellectual needs on Geopark or Jeju Island nature. However, the effects of the visit motivation such as landscape appreciation, relaxation and leisure on revisit and visit referrals were significant for Jeju Island residents and tourists alike.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visiting infrastructure and publicity in the operation of

Geopark trail program between Jeju Island residents and tourists.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 in the visiting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of Suwolbong, but the publicity was low and active publicity marketing is needed. It is noteworthy that the visit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visits and referrals to other peopl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esthetic pursuits of nature is the most motivating factor to the visitors of Suwolbong, which are som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the Suwolbong Geopark program; that is to keep the natural environment as it is while meeting the intellectual demands. Also,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Jeju Island residents and tourists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recognition of Suwolbong as the representative site of Global Geopark in Jeju Island. In other words, Suwolbong is a well-known Geopark site to Jeju Island residents who suggested that publicity of Suwolbong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the site was not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site of Global Geopark to tourists.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Jeju Island's Global Geopark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ublicity strategies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representative sites in Jeju Island Global Geopark.

